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AUG 17 1981

The Korea Times Toronto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일간) No. 575 1981년7월25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July 25. 1981

特輯

사랑과 獻身의 奉仕15년

活動마치고 9月에 떠나는 「美平和봉사단」

◇마치 어린 아이에게 일상용어를 가르치듯 여중생들에게 호손도손 영어회화를 가르치고 있는 도나·트리스양。그녀도 물론 한국을 떠나지 오래다。

「사랑과 헌신의 사절」이 마침내 離別을 고한다。세계평화와 우호의 증진을 목표로 이땅에 왔던 美평화봉사단이 만 15년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오는 9월30일 전원 귀국하는 것이다。지난 61년, 당시 케네디대통령에 의해 창단된 평화봉사단은 그 6년뒤인 66년9월 일진 1백명이 우리나라에 도착함으로써 첫봉사의 문을 열었었다。그동안 이들은 모두 51차례에 걸쳐 무려 1천7백35명이 파견됐으며, 전국의 산간벽지에서 결핵과 나병관리, 모자보건사업·직업재활·장애자 특수교육등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휴전선 부근의 東草·華川지방의 각급 학교에서부터 멀리는 濟州道남단 中文里에 이르기까지 이땅의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펴온 그들의 이야기―。

왜 한국사람들 「外製」를 미칠듯 좋아 하나

10%는 떠나기싫고 20여명 한국인과 結婚

그들이 남긴 實績·에피소드

◇人間의 이해

『세계를 하나의 울타리로!』

61년 故 케네디대통령이 美國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창설하면서 외친 슬로건이었다。

이 슬로건에는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간의 이해증진이란 그의 이념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것은 또 케네디대통령이 선거유세중 내걸었던 뉴·프런티어정신의 한 구체적인 구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신에서 출범된 평화봉사단도 처음 얼마동안은 일부 후진국에서 저항을 받는 사례까지 없지않았다。

「美國의 새로운 침투」라는 것이 저항의 이유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갓졸업한 젊고 의욕에 찬 미국인들로 구성된 평화 봉사단은 그후 67개국에 파견돼 각종 봉사활동을 폈고, 이쯤되자 당초의 오해도 서서히 가시기 시작했다。

66년9월 첫발, 51차례 1천7백35명 파견

그런 그들이 우리나라에 첫발을 내디딘것은 66년9월이었다。이미 창단직후인 62년 우리나라 정부가 평화봉사단의 파견을 미국정부에 요청했으나 당시의 불안정한 국내정세 때문에 파견이 늦어진 것이었다。

우리나라에 온 제1진 98명은 그 주력이 영어교육팀。그후 특수교육분야·직업재활·모자보건·결핵과 나병관리등의 보건분야에까지 활동범위를 넓혀갔고, 마지막까지 한국에 남았던 팀이 바로 이들 보건분야 요원들이다。

원래 평화봉사단의 美國내 역할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그 성격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만 해외에서만은 주재국과의 협의에 따라 각기 특색있는 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있는 것이다。

영어교육 우선에서 보건분야로 방향을 바꾼 우리나라에서의 활동 역시 그같은 상황변화에 따른 조치였다。

이들은 당초 우리나라에 오기전 하와이에 있는 평화봉사단훈련센터에서 한국을 배우고 오게 마련으로 온돌방이 있는 기와집에 재래식 변소까지 만들어놓고 한국으로 떠나는 봉사단원들에게 10주간씩의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다。이것은 물론 한국에서의 봉사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위한 계획의 하나였다。

이 한국관에서는 우리의 역사와 언어, 풍습·지리·예절등 장차 한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골고루 가르쳤다고 한다。

그러나 단 10주동안의 교육만으로는 벽안의 청년들에게 한국을 충분히 이해시키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생면부지의 이땅에서 그들이 연출한 온갖 에피소드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잡채 주시오

처음 한국땅을 밟은 브루스·브로크군(25)은 금산에 발령을 받아갔다。미시간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한 이 금발의 청년은 곧 시내에 자그마한 하숙방을 얻었다。

그는 이미 이곳에 오기전 하와이 한국관에서 간단한 인삿말 정도는 익히고 있어「그런 것쯤은―」하고 생각하는 터였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하숙 첫날 저녁 그는 점잖게 첫 실언을 하고 말았다。

그날 저녁 브로크군은「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주인이 거처하는 방문을 조용히 노크했다。

뭣 불편한 점이라도 있어 자신을 찾는 줄만 알고 방문을 여는 그집 주인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食堂에 가선 「피임밥」주문도

『안녕히 죽으세요―』

기절초풍을 할 주인이 당황할 말을 잊고 멍청히 바라보는 사이 그는 얌전히 자신의 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브로크군의 이 『안녕히 죽으세요』는 물론 『안녕히 주무세요』의 잘못된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해도 그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하와이 한국관에서 익힌 한국어인사는 분명 정확했으나 그는 이것을 잘못 머리에 담은채 급격 한국에 도착했던 것이다。

브로크군의 실언은 계속됐다。책방엘 가서는 잡지책을 달라는게 「잡채」로 발음이 돈장을 했다。

그는 훗날 이런 체험담을 말한 일이 있었다。

『미국에서 훈련을 받을때 한국에 가면 밥을 무조건 다 먹어야 좋아한다고 들었어요。한국에 도착한 며칠뒤였지요。금산군진산면의 어느 농가에 들른 일이 있는데 그 때가 낮12시반쯤이었읍니다。아주머니가 밥을 차려왔지 군요。그런데 어떻게 많이 차려왔는지 무려 두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다 먹었읍니다。커다란 사발에 퍼담은 밥을 듬뿍 담은것을 비롯, 반찬으로는 김치·콩나물·두부·산나물·깍두기·시금치·고막등등…。그런데 4시에 또 밥상을 차려오지 않겠어요。저녁이죠―』

이때 그와 밥상을 들고 오 주인집 아주머니 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고갔다。

『아주머니, 이걸 어떻게 먹을까요? 나는 지금 대단히 배가 부릅니다。』

그러나 주인 여자는 브로크군의 이 말을 의례적인 사양이라고만 생각했다。그리고는 계속해서 먹으라고 강권했다。난처해진 그는 이를 악물었다。『어떤 일이 있어도 먹도록 하자。그렇지 않으면 미상을 받을텐디…。』

하지만 이때 만복(滿腹)상태인 자신의 위가 다른 음식물의 도입을 허락할리 만무였다。

◇과식과 날계란

『왜 안잡수세요? 맛이 없읍니까?』

섭섭한 표정의 아주머니자 정색을 하는바람에 그는 섬뜩했다。

『천만에요。진짜 진짜 배가 부릅니다。』

그러자 그 여주인의 안색이 확 달라졌다。부엌으로 나갔다 온 그녀의 손에 달걀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이걸 먹으면 소화가 될

美平和奉仕團이 남긴 實績·에피소드

출품마감 사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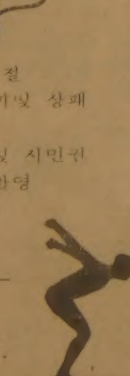
지난 6월6일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사진촬영대회 작품 출품이 오는 30일 마감됩니다.

마감일 : 81년7월30일
제출처 : 본사(1025 DUPONT ST. TOR.)
(1025 DUPONT ST. TOR.)
새한칼라현상소
(630 BLOOR ST. W.)
킴스카메라
(619 BLOOR ST. W.)
출품종목 : 흑백, 칼라
8"×10" 이상
스라이드
(135mm 12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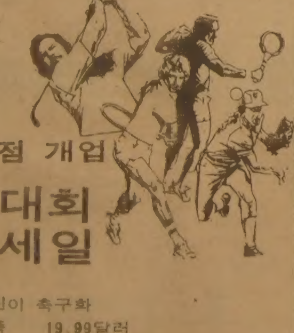
한인사진협회
한국일보사

킴스카메라 및 트로피
Kim's Camera & Sound

취급품목 : ①카메라 일절
②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③여권사진및 시민권 사진즉석촬영 (5분이내)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운동구점 개업
축구대회 특별세일

①어린이 축구화
가죽 19.99달러
합성가죽 13.99달러

②축구대회 : 단체유니폼 마춤
③각종 트로피및 감사패 주문
④ROLLER스케이트
사이즈 : 1 to 5 $39.00
Dominion Roller스케이트 $78.00

BLOOR / SUSSEX / ROBERT / SPADINA / HARBORD

VARSITY스포츠점
252 ROBERT
967-7304 이 건 영

SunLife OF CANADA

취급보험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R.S.P

김 신 명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B)922-3111 R)439-8885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66년 한국에 오기전 평화봉사단은 하와이에 일시 설치한 模擬한국에서 기후적응등 자동 훈련을 쌓았다。

문패엔 분명 「개조심」…"개선생님 계십니까"

접니다-。』

생전 처음 날계란을 깨어 먹은 얼마뒤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그것을 모두 토해버리고 말았다。

또 그는 자신과 함께 온 가족계획요원 존·카더군(26)의 실언 몇가지를 첨언했다。

한국에 오기전 피임법등 가족계획에 관한 한국말을 익힌 카터군이 하루는 식당엘 갔다。순수 한식집이었다。여기서는 주인에게 「비빔밥」을 주문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식당주인은 물론 그 둘레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를 움켜쥐고 깔깔거리는 것이 아닌가。

『앗차!』 무엇인가 자신이 실언을 한것을 간파한 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면서 다시 한번 또박또박하게 주문을 했다。

『아저씨、비빔밥주세요!』

이、소리가 끝나자 또 한번 박장대소가 터졌다。

어안이 벙벙해진 카터군은 슬며시 분노가 치밀었다。극도의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때 옆에 영어를 아는 한 젊은 대학생이 다가와서는 사람들이 왜 웃었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난 카터군은 몸둘바를 몰랐다。내용인、즉 자신은 분명 「비빔밥」으로 정확히 발음을 한 것인데 소리는 엉뚱하게도 「피임법」으로 둔갑돼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뒤 그는 읍내의 어느 병원에 용무가 생겨 갔다。

꼭 원장을 만날 일이었기에 문앞 가까이에 있는 접수에 다가가 물었다。

『여기 화장실이 어디에요?』

예쁘장한 미국청년의 이 말에 약간은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한 접수구의 아가씨 왈、『저기-』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분명 그곳은 남자 화장실이었다。카터군은 또 움찔했다。그렇잖아도 며칠전 식당에서의 창피스런 일이 자꾸 연상되는 마당인데 또 실수하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뇨、화장실、화장실…』하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펴 보였다。

그때에야 간호원은 비로소 그가 지금 원장을 찾는것이라 직감、그를 원장실로 안내해 주었다。

◇여인숙 오해

같은 한국사람들이면서도 여행을 안하다거나、전혀 집을 나서보지 못한 순박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따금 여인숙의 의미가 분명치 않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글자 그대로 「旅人宿」은 길가던 나그네가 가장 값싸게 하룻밤 유숙을 하고 가는곳이다。

문제는 이를 한글로 표기했느냐、한문으로 했느냐에따라 서로 다른 느낌이 든다는 사실이다。

가령 한문으로된 간판을 달았을 경우라면 쉽게 그것이 『여관 비슷한 곳』으로 수긍이 가지만、한글일때는 다르다。특히 이런곳을 이용해 보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구별 [illegible]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이국만리에서 온 그들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서의 여인숙의 의미를 제대로 간파할리 만무하다。

그저 한글뜻인 여인(女人)과 그들이 자고가는 집쯤으로 아는것만도 제법 식견층(?)에 속한다고 해야할 것이다。

텍사스주 출신의 존·다이크군(23)도 예외는 아니었다。

적어도 한글은 남보다 더 익혔다고 자신하는 그였다。

全北정읍군의 어느 마을에서 일하고있던 그에게 어느날 읍내에 나올 기회가 생겼다。일을 다 마치고 귀가하려했으나 이미 차편이 끊긴뒤였다。

하는수 없어 그는 자고갈 마땅한 곳을 찾기 시작했다。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눈에 띄는 것은 모두 여자들만 들어갈수 있는 곳이었다。

가까스로 어느 여관을 찾아 들어 주인에게 물었다。

『정읍은 여자들이 많이 자고가는 곳인가요?』

주인은 어안이 벙벙했다。

『무슨 말인지요』하고 그는 되물었다。『하룻밤 자려해도 전부 「여인숙」뿐이어서…。』

비로소 주인은 그의 말뜻을 알아듣고 여인숙이 결코 여인들만의 전용 숙소가 아님을 설명해 주었다。그리고 가장 값싸게 유숙할수 있는곳이라는 사실도 참고로 알려 줬다。

평화봉사단원들은 누구나 다 하와이 훈련센터에서 이런 교육은 받았다。

『한국에 가면 집집마다 문패가 없는집이 없다。』

강사들은 친절하게 예를 들어 설명했다。『그 문패가 「홍길동」이라고 쓰여있으면 맨 위에 있는 「홍」이 姓이고 아래 두 글자는 이름이다。』

그들은 또 『그런데 명심할 것은 이들을 부르기 보다 「선생님」하고 부르는것이 예의 바른 표현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를 잊지 않았다。

◇失笑 만발

『꼭 며칠뒤면 우리는、나는 낯선 이국땅에 던져질것이다。』

◇최초의 봉사단원으로 내한한 66년 9월의 일진 88명。이들의 파송을 시발로 한국에서의 봉사활동은 그후 15년간 꾸준히 계속되어졌다。

이런 절박한 심리를 꿰뚫는 강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만큼 단원들의 폐부에 와 닿았다。

그래서 어떤 강의、어떤 석상의 대화보다도 진지했고 진도가 빨랐다。

그러나 역시 그것은 지극히 피상적인것에 불과했다。

제1진으로 한국에 온 파란눈의 한 봉사단원(이름은 밝혀지지않음)의 얘기는 바로 그런 피상적 교육의 산물이었다。

어느날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벽지의 어느 유지를 찾아야할 일이 생겼다。

하와이에서 배운 문패들이 마을의 거의 집집마다 붙어있어 『역시 배운대로군!』하고 혼자 고개를 끄덕이곤 부지런히 그 집을 찾아갔다。아니나 다를까。문패는 거기에도 있었다。그리고 그 문패는 어찌된 영문인지 다른 집의 것에 비해 글씨가 굉장히 커보였다。

커다란 대문 중간부분쯤에 쓰여진 글은 「개조심」이었다。청년은 『옳거니!』하고 쾌재를 불렀다。

기어이 찾았다는 안도와 설레임이 함께 솟구치기도 했다。

목청을 가다듬은 그는 점잖게 주인을 불렀다。

『개(犬) 선생님、『개선생님-。』

문밖 소리를 들은 주인이 무슨 소린가하고 대문을 열었다。

모습이나 차림새로 보아 주인임을 직감한 그는 재빨리 주인임을 확인해야 했다。

『개 선생님입니까?』 뜻밖의 질문에 그 주인은 깜짝 놀랐다。

『개선생이라니、당신 누굴 놀리는거요? 나、金선생이요、金선생…』하고는 문을 닫으려 몸을 돌렸다。

청년은 의아하기만 했다。『분명 대문에 쓰인 이름이 「개조심」이면 姓은 「개(犬)」임에 틀림 없는것이 아닌가。그런데…。』

그는 주인을 붙들었다。그리고는 대문에 쓰여진 글씨를 가리켰다。

『틀림없이 대문에는 「개조심」씨댁으로 돼있는데요…』라면서 주인의 눈치를 살폈다。그때에야 주인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그리고 설명을 듣고난 청년의 自愧어린 얼굴에도 한가닥 失笑가 스쳐갔다。

山間僻地 배치된 단원 「모기」로 고통받고

처음 단원들을 괴롭힌 해충으로 모기가 있었다。

산간벽지에 배치된 단원들일수록 고통은 더 심했다。어느 무덥고 짜증스런 여름밤이었다。그날따라 유난히 모기의 표적이 돼 괴로움을 당하던 한 대원이 하숙집 아주머니를 소리쳐 불렀다。

『아주머니、아주머니-。』

곧 숨이라도 끊어질듯 불러대는 신야 美國청년의 호출에 하숙집 아주머니는 아연 긴장해서 달려왔다。

『미국청년、무슨 일이라도…。』 숨을 몰아쉬며 다가온 그녀가 채 말끝을 마치기도 전에 청년은 그녀의 입을 가로 막았다。

『비행기 새끼!』『비행기 새끼!』 창백하고 울상이된 얼굴의 그의 손은 허공을 휘젓고 있었다。

알고보니 『웽』하면서 날고 있는 모기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본국에서 主·副食의 구별없이 식사를 해온 이들은 밥상에 오르는 음식이면 그것이 밥이건 국이건、심지어는 간장과 된장、고추장 까지라도 모두 먹어야 되는것으로 곧잘 착각들을 하곤 했다。

따라서 어떤 단원은 끼니때마다 짠 간장을 한 종지씩 모두 마시고는 화장실출입하기에 바빴던 일화도 있다。

69년 한국아가씨와 景福宮서 국제結婚도

◇3分 결혼식

이땅에 평화를 심으러 왔던 여러명의 평화봉사단원들이 한국의 아가씨와 또는 한국 남성과 화촉을 밝혔다。

그 첫 케이스가 69년12월1일에 거행된 景福宮에서의 리처드·매케타이어군과 한국아가씨 吳英愛양의 결혼식이었다。

평화봉사단원으로서는 첫결혼식이었던만큼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관심도 컸었다。

그때 그 결혼식의 현장분위기를 잠시 되돌아 보기로 하자。景福宮 勤政殿앞뜰。여기 30명남짓한 동료단원들과 신부의 친구、가족들이 좌우로 늘어서있다。그러나 응당 있어야 될 주례나 화환은 없다。그저 勤政殿처마끝에 걸린 저녁놀이 유일한 식장의 세팅。

감색 싱글차림의 신랑 리처드·매케타이어군(당시25歲)과 진홍드레스 차림의 신부 吳英愛양(당시23)이 입장했다。이때 피아노의 웨딩마치 대신 한 봉사단원이 부르는 피리가 이를 대신하고 있었다。

두 손을 맞잡은 신랑·신부가 돌계단을 올랐다。그리고는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부의 손에 금가락지가 끼여지고 이어 신랑·신부는 결혼선서를 대신하듯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다。그런다음 돌아서서 하객들에게 인사、하객들은 박수로 이들 젊은 부부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이것으로 결혼식은 끝났다。소요된 시간은 꼭 3분。아마도 우리나라에선 가장 짧은 결혼식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당시 매케타이어군은 결혼식 장소를 하필 勤政殿 앞뜰을 택했느냐에 대해 이렇게 답했었다。

『신부 집에서 우리결혼 매우 반대했읍니다。양반집、국제결혼 아니된다 하는 거지요。그래서 이곳 택했어요。이곳 「킹(王)」들이 政府 돌보던 곳 아닙니까? 우리들 결혼 많은 「킹」들이 지켜보고 또 축복해 줄 것을 믿고 해서 결혼식 이곳서 하기로 했읍니다。』

신부 부모의 완강한 반대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올려진 이날 결혼식후 부부는 美國피츠버그市에서 고등학교교장으로 있는 신랑의 아버지에게 장거리 전화를 걸었다。

아들의 『결혼식을 끝냈다』는 보고에 이어 며느리 吳양의 폐백을 대신한 전화인사를 드렸다。

이렇게해서 한국인과 결혼한 첫 평화봉사단원이 탄생됐었다。이후 미국청년들이 한국아가씨와 결혼한 숫자는 계속 늘어만 갔다。

국제결혼은 비단 미국청년과 한국처녀들 사이에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봉사단멤버로 온 20여명의 미국아가씨들도 한국청년들과의 로맨스를 꽃피워 마침내 국제결혼에 성공했다。

動亂때 헤어진 家族 찾고

◇母子 相逢도

동족상잔으로 헤어진 母子가 뜻밖에 평화봉사단의 출범으로해서 꿈에 그리던 서로를 만나게된 가화도 있다。

주인공은 光州에 사는 金三禮(당시62세)여인과 그녀의 아들 마이큐·朴씨(본명·文인기)。

이들의 이별은 전쟁이 치열하던 51년가을에 있었다。

고향인 全南 潭陽郡 南面 梧岩里에서 모자는 光州의 친척집으로 잠시 다니러 왔다가 서로를 놓치고 말았다。

꼭 쥔 어머니의 손을 잠시 놓은 文씨가 계속 어디론가 걷다가 어머니의 시야에서 영영 사라지고 만것。

그만 졸지에 고아가 돼 영영 울고있는 그에게 어느 미군병사가 다가와 덥석 안았다。

전쟁고아러니 생각한 그 미군은 이때부터 文씨를 데려다 부대안에서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뒤 그 미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文씨는 재미 하와이 동포인 어네스트·朴씨에게 양자로 보내졌다。그리하여 그는 하와이에서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졸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어릴때 헤어진 어머니와 가족들、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조국을 잊을 수 없었던 文씨는 언젠가 기회만 되면 반드시 고국에 가 가족들을 찾으리라 마음 먹고 있었다。

그런 그가 미국평화봉사단에 자원 입단함으로써 마침내 이같은 꿈을 펼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것이다。

74년말 봉사단에 지원한 文씨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한국을 찾아왔다。그는 그길로 충북報恩郡에 있는 보은중학교에 파견돼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그런 틈틈이 그는 백방으로 가족들의 행방을 쫓았다。

그러나 막연하기만 한것이 부모의 이름이 기억에 없었다。다만 모의 이름인 정기와 누이 동생이름만이 희미하게 되살아나 이를 근거로 수소문하고 나선것이다。

어느날 이 사연을 사촌형 文종기씨가 들었다。그는 다시 이를 숙모인 金三禮씨에게 전했다。그리하여 75년1월14일하오 이들 두 모자는 光州문화방송국 스튜디오에 함께 모습을 나타냈다。

◇어린이들에게 BCG접종을 하고있는 봉사단원。이들은 극히 적은 봉급으로 가난한 농촌에서 2년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곤 했다。

두 모자의 극적 해후를 주선한 방송국측은 그 광경을 시청자들에게 전하기위한 조치에서였다。그러나 막상 방송국에 나온 어머니 金노인은 자신의 둘째아들 인기씨가 바로 눈앞에 있는것을 보고도 쉽게 알아내지못했다。

다섯살때 헤어버린 아들이 29세의 청장년이 됐으니 당연한 일이었다。그에는 또 아들이 이미 죽은것으로 단정、제사까지도 지내왔었던 [illegible]였다。

잠깐의 긴장이 흘렀다。金노인은 文씨의 뒷머리를 살폈다。작은 혹이 있었다。틀림없는 둘째 아들이었다。그녀는 순간 와락 아들을 끌어 안았다。실로 24년만에 모자가 다시 해후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국내 여고교실에서 영어강의를 하고있는 여성봉사단원。

박봉털어 死境의少女 구해준 美談남기고

◇모금에 앞장

한국에 온 목적이 봉사활동에 있었던 만큼 당연한 것이겠지만 평화봉사단원들이 남겨놓은 미담도 적지가 않았다。

그 한예가 지난69년 12차 대원으로 한국에 온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존·N·핀군의 경우였다。

부산토성중학교에 부임한 핀군은 70여명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콩나물교실과 선생위주의 수업、개인별 능력은 무시한 수업방법등 미국과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중학체제에 놀랐다。

한국의 교육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을 꿰뚫어 본 핀군은 당시 정부가 무시험 추첨제로 중학교평준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작업에 자신도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그는 우선 미국전역에 모금운동을 펴 많은 장학금을 마련하고 교육에 필요한 기재를 모아 중학교 평준화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핀군은 고향인 오콘市에서 국민학교교장으로 있는 한 친지에게 편지를 냈다。그는 편지에서 한국교육의 실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돕자는 간곡한 애소를 사연으로 담았다。얼마후 회신이 왔다。

내용은 자기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긴급학부형이사회를 열어 한국학생들을 돕기로 결정、모금운동이 한창이라는 소식이었다。

마침내 그 첫 결실이 안겨졌다。첫송금 3백달러가 우송돼 온 것이다。그는 이 돈을 학교당국에 일임、우선 장학금으로 가난한 학생들을 도울 계획을 세웠다。

『이 모금 운동은 세계평화를 향한 우리 노력의 조그마한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이 운동이 발전하는 한국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한국에 온 보람을 느낄수 있지요。』

당시 그의 노력을 상찬하는 주위의 얘기에 대해 핀군은 으레껏 이런 말로 대신하곤 했다。

그의 이같은 충정은 그후 계속해서 미국내에 메아리져 적잖은 송금이 답지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69년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핀군은 대학원을 진학하라는 부모의 권유를 뿌리치고 대신 봉사한 세계국민을 돕기로 결심、같은해 평화봉사단에 입단해서 한국에 왔던것。

학교에서 하루 4시간의 영어교육을 맡으면서도 그는 선생 위주의 수업방법을 지양、학생들과 한몸이 돼 수업을 하는 열성파로 알려졌었다。

핀군은 또 휴식시간은 물론 방과후까지도 학생들과 게임을 산책하면서 산 영어를 익혀준 모범 선생이었기도했다。

◇갸륵한 女心

江原道 原城郡 文幕面보건소에 근무했던 캐롤린·슬루스양(당시23세)도 예의 美평화봉사단원의 한사람。

그녀의 따사로운 손길이 아니었으면 사경을 헤매던 한 소녀는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을뻔했다。

슬루스양이 한국소녀 李은숙양(8세)을 처음 만난것은 자신이 근무하는 보건소에서였다。

그때 은숙양은 [illegible] 이상으로 중태에 빠져 있었다。

가난한 농부 李복진씨의 2녀인 그녀는 그 가난때문에 치료는 커녕 진찰조차 받지 못한채 사경을 헤매야 했다。

이를 딱하게 여긴 슬루스양은 자신이 은숙양의 병마를 퇴치키로 결심、얼마되지 않은 주머니돈을 몽땅 털어 서울로 올라왔다。

특별한 대안이 마련돼서가 아니고 무작정 상경한 것이다。그러나 그녀에게는 이미 자신만은 나름대로의 복안을 마련 중이었다。

『서울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 그게 그녀의 생각이었던것이다。

서울에 [illegible] 슬루스양은 은숙양을 데리고 서울대학병원을 찾았다。병원에서 그녀는 사정을 털어놓고 도와줄것을 요청했다。

당시 신경외과과장 沈輔成박사는 슬루스양의 이 착한 마음씨에 감동돼 모든것을 무료로 하여 수술해 주기로 약속했다。

은숙양의 병명은 두개인두종으로 일종의 뇌종양으로 밝혀졌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다。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를 지켜본 은숙양의 부모는 물론 슬루스양이나 직접 집도를 맡아했던 서울대학병원 의사들의 기쁨은 컸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슬루스양의 경우 더말할나위가 없었다。그녀는 은숙양이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 서울에 올라와 숙식을 하되 돈이없어 퇴원때는 은숙양의 어머니에게 가져고있던 10만원을 털어 보태주기도했다。

文幕면보건소에서 결핵담당요원으로 일하고 있던 슬루스양은 그후 인사를 받을때마다 『다만 할 일을 했을뿐인데…』라며 겸손해 했다。

자신의 박봉을 털어 인정가화를 꽃피운 예는 얼마든지 있었다。

全北沃溝군開井면 開井간호학교에 근무하던 평화봉사단원 브라인트여사(당시54세·美보스턴출신)도 그같은 미담의 주인공중 하나。그녀는 開井간호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펴는 한편 인근 群山기술학교 2백여 학생들이 불우한 환경속에서 배우려고 노력하는것을 우연히 발견、이들을 도울것을 결심했다。그리하여 2년여의 체재기간동안 자기의 봉급에서 매달 1백달러씩을 떼어 희사하는 한편 각급 원호단체등에도 이런 사실을 알려 학교로 하여금 도움을 얻도록 주선했다。

募金운동 펴 불우학생 돕고 불구아 70명 보모 노릇까지

◇公醫겸 보모

평화봉사단원으로 온 게리·M·겔러웨이씨(당시24세)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공의겸 보모 역할을 해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함께 내한한 라빈슨여사로부터 시립아동보호소의 실태를 전해 들은후 이일을 자청하고 나선것이다。그가 특별히 관심을 쏟은 곳은 19동의 불구아동들。

불과 여섯살의 어린이로부터 18세까지의 이들 70여명은 거의가 영양실조에 피부병등 병들이 겹쳐있었고、더구나 이런 어린이들일수록 어른들의 손길이 거의 닿지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날 그는 라빈슨여사와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19동의 어린이들을 돌아봤다。그 결과 그는 깊은 상처를 받고 돌아와야 했다。

『아저씨、아저씨』하고 부르며 따라오는 소년들、여기에 1명의 보모가 있긴 했지만 불결한 주변의 환경은 차마 눈뜨고는 볼수없었다。이것이 그가 이일에 적극 나선 동기가 됐다。

이후 겔러웨이씨는 매주 4·5회씩 시간을 쪼개 이곳을 찾았다。가끔 그림책과 장난감을 사가지고 가기도 했고、때로는 라빈슨여사와 함께 찾아가 몇시간씩 종이비행기를 접어주거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과거 그들이 갖지못했던 새 생활을 갖게해 주었다。

또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建大生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알려 학생들이 번갈아 이곳을 찾게 만들었다。

얼마를 지나면서 겔러웨이씨는 어린이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처음에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들의 신장과 체중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19동의 어린이들중 78%가 피부병에 걸려있었고、69%가 영양실조에 걸린 사실을 알아냈다。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시내 E국민학교 어린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다시 建大임상병리학과 趙漢龍교수(당시)의 지도아래 피검사를 실시했다。

그가 대학에서의 전공이 생물학이었다는 사실은 이일에 큰 도움이 되어 주었다。

다른 한편 그는 교수와 검사요원들로부터 분석과정을 배우고 전문서적을 읽는등 이 연구를 자신의 공부로 삼고 열심히 했다。

아뭏든 그는 여기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계에 온정을 청하는데 앞장섰

76년 8월 평화봉사단 파한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美 平和奉仕團이 남긴 實績·에피소드

美 平和奉仕團이 남긴 實績·에피소드

한국인들 예의 바르나 위생·時間관념 없어

異性과의 접촉없어 女性團員들 외로왔고

"음식안맞고 對話안돼 친구없어 不便했다"

美 平和奉仕團이 남긴 實績·에피소드

으로써 또 하나 미담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데 갤러웨이씨는 어보다 앞서 첫부임지였던 木浦교육대학에서 일할때도 구두닦이 고아등 집없는 아이들을 위해 「에덴의 집」이란 불우아동들을 위한 집을 지어 이들을 보살피며 가르치기도 했었다.

이 「에덴의 집」을 지을때는 석달동안 아이들과 함께 삽으로 땅을 팠고, 블로크를 찍어냈으며 돈이 모자랄때는 월급까지 털어넣었다.

◇光明 되찾게

어렸을때 원인 불명의 병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던 丁美龍양(당시 14세)이 한 평화봉사단원의 도움으로 광명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78년 세밑을 훈훈하게 만든 화젯거리였다.

이 미담의 주인공은 全南務安 北中에 근무하고 있었던 영어교사 데이비드·베어씨.

그는 자신이 어학교에 부임하던 지난77년 봄, 한쪽눈을 실명한채 실의에 빠져있는 丁양을 발견했다.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늘 자신의 불우한 신체때문에 고민하는 丁양을 보다못한 베어씨는 어떻게든 자신이 힘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丁양으로부터 후천적인 질병이 실명 원인이 됐다는 설명을 들은 그는 수술만 받으면 눈을 되살릴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丁양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온 베어씨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입원을 시켰다. 각막이식수술을 받게하기 위해서였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치료비가 모자랐다. 사재를 털었으나 그것도 태부족이었다.

하는수 없이 친지들을 찾아 나섰으나 그래도 치료비가 모자라긴 마찬가지였다. 생각다 못한 그는 한국일보사를 찾았다.

결국 그의 사연은 각계에 전달됐고, 답지한 성금만도 2백50여만원에 이르렀다.

4개월여의 입원치료를 받은 丁양의 눈은 정상을 되찾았다. 실명됐던 오른쪽 눈의 시력이 0·3. 콘텍트를 끼면 0·6이나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게된 것이다.

『선생님 정말고마와요…』

丁양의 목멘 소리에 그녀를 도와온 베어씨의 음성도 떨렸다. 그는 『수고 많았다』는 주위의 치사를 『사회의 온정탓』이라고 애써 고마움을 돌렸다.

공교롭게도 丁양이 퇴원하던 그해 12월29일, 베어씨는 한국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야 했다.

기쁨과 아쉬움이 스승과 제자가 서로 만난 병원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美龍이의 행복은 바로 내 행복이야. 네가 바라는 네 오빠가 오늘부터 되어주마…』

이 공로로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감삿장을 받기도한 베어씨는 이어 『너를 보기 위해서라도 꼭 다시 돌아오겠다』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茂朱중학교 영어교사 메리·매코믹양은 훗날 釜山으로 전근되면서 월남難民들을 보살펴준 여인으로 유명하다.

한국에 와서 인정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는 그녀는 그 인정을 특별히 나라 잃은 월남난민들에게 쏟은것.

장차 美國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언어와 풍습을 가르치는 한편 온갖 뒷바라지를 도맡아 해주었다.

이같은 헌신적 봉사로 그녀는 월남난민들로부터 「우리의 천사」라는 칭송을 한몸에 받았다.

◇생활과 불편

大邱에서 2년간 일한적이 있는 미시간주 캘러머주 대학출신의 캐리·렉터군은 한동안 大邱출신의 어느 여가지와 데이트를 가진적이 있었다.

그는 그때 당한 순간의 모욕을 결코 잊을수가 없다고 했다.

『경북달성군 보건소에서 전태요원으로 함께 일한적이 있는 아가씨와 한번 데이트를 했는데 내가 한국말을 모르는줄알고 막 욕을 퍼붓더군요. 아마 껌을 사러 들어갔지 싶은데 거기서 우리 한국인아가씨에게 「네가 양년이냐」고 손가락질을 하더군요. 얼마나 마음이 안되였는지 몰라요.』

렉터군의 이 말에서 그들이 겪는 현장적인 갈등이 어면것인가를 잘 읽을수 있게 된다.

이미 10여년전의 일이긴하지만 당시 서울대 문리대 李萬甲교수는 「주한 미평화봉사단 사업에 관한 사회학적평가」라는 조사 데이터를 발표한적이 있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물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평가됐다.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응답자 36명중 「지(知)적, 문화

적 생활을 할 수 없다」가 가장 많고 다음이 「성적 불만이나, 이성과의 접촉이 원만하지 못하다」, 「미국에서 가졌던 친구와 같은 친구를 한국인 가운데서 가질 수 없다」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 불편을 많이 느끼는 정도의 순서는 ①한국인과 대화가 잘 안됨 ②한국인이 폐스 코를 눌려댄다 ③한국인이 자신들을 쳐대서 ④목욕시설 불량 ⑤한국언어 그들에게 개인적 예배을 바람다 ⑥영양섭취 부족 ⑦외톨다 ⑧음식이 입에 안맞는다⑨거처의 불결 ⑩기후가 맞지 않는다 ⑪물건도난순으로 되어 있었다.

비록 그후의 우리 사회가 많은 변천을 겪었다고는 하지만 이 조사에서 밝혀진 언어소통의 문제와 이성문제의 고민등은 역시 시간이 흘렀어도 불변이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한편 李교수의 조사보고서는 피스 코가 한국인으로부터 받은 좋은 인상을 ①애국심 ②친절③예의 범절④연장자와 연소자의 관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있다로 적고있다.

반면 나쁜 인상을 받은것으로는①위생관념②시간을 잘 안지키는 것③官과 民의 관계④부정부패에 관해 적극적이 아니다⑤남녀차별등으로 되어있다.

한편 한국인이 평화봉사단으로부터 받은 인상중에서 좋은점은①정직성②약속을 지키는 태도③근면성④시간을 지키는 태도⑤친절성등을 들었다. 또 별 호감을 받은 면은 ①돈을 취급하는 태도②일의 능률부족③애국심에 대한 견해차이④한국을 이해하려는데 있어서의 경험⑤이해심 부족 등이었다.

◇한국에서의 봉사활동을 끝낸 [illegible] 주고받는 단원들.

富裕한 사람들 가난한사람 돕기에 인색해

◇團員의 手記

초기의 평화봉사단원들에게 있어 한국은 매나 낯선 땅이었다. 그만큼 그들이 한국에서 받은 인상도 강렬했다. 과연 피스 코의 눈에 비친 한국, 한국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던가.

제1진으로 한국에 왔던 뉴욕·스키드모어대학영문과 출신 로즈마리양은 『한국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친절하고 관대하지만 공식적관계에선 계속이 너무 많고 절차가 까다로와 일하기에 힘든것같다』고 표현했다.

그녀는 또 『한국가정은 중류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아버지와 아이들간에 대화의 기회가 없어지고 또 부모는 아들만 귀여워 한다』고 했다.

역시 제1진으로 慶熙高校에서 영어를 가르친바 있는 찰즈·다들러씨는 『말로만 듣던 한국의 발전상에 깜짝 놀랐다』면서도 『그러나 지나치게 외래 풍속, 외래사조를 따르는 경향은 보기에도 민망했다』고 솔직이 털어놨다.

그는 때마침 서울에서 벌어진 국제경마대회를 참관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지상에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살고있는 한 미국인으로서 저는 이곳에서 벌어진 국제경마대회를 보고 대단히 실망했읍니다(中略). 부유한 한국인들이 경마나 컨트리클럽 같은 일에 몰두한다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국제경마대회에서 소비되는 돈이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힐수 있을지 모르겠읍니다(中略). 저의 한국인 친구들은 제가 이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기금에 인색하다는것을 느꼈읍니다. (下略)』

全北임실군의 삼개면과 全北도청의약과 등에서 근무한적이 있는 인네스·스물우드양은 특히 자신이 목격한 관리들의 횡포에 놀랐다고 했다.

그녀는 『일부 경찰이나 보건원들이 같은 한국사람에게 불친절한데는 이해가 되지않았다』면서 『특히 가난한 사람이 보건소를 찾아오면 「거다려!」 하고 거만스럽게 말할때는 마음이 아팠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스물우드양은 『농촌의 인심만은 세계제일인것 같다』고 했다.

경북칠곡군지촌면사무소와포항보건소에서 일한 뉴욕·펜실베이니아대학영문학과출신의 도널드·브라운씨 역시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자신의 견해가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는 전제아래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적극성이 결여돼있다』고 힐난한다.

『물론 봉급이 적은것이 원인이 될수도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자기능력을 자신이 개발하거나 또는 일거리를 찾아내려는 태도가 극히 소극적이었다』는 그는 『출근해서 30분은 잡담, 점심시간 전후 30분은 점심타령, 퇴근시간 30분전은 술마실 플랜을 짜느라 바쁜 그런 분위기는 지극히 이해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같은 일부 따끔한 핀잔에도 불구, 대부분의 봉사단원들은 『한국인의 따스한 정을 결코 잊을수 없다』며 『일생일대의 보람을 안고 떠난다』는게 지배적이었다.

◇연장 근무도

단원들은 또 모두가 대학을 졸업한 인텔리들이었기에 한국인들과의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초기 그들이 해외로 파견될 당시만 해도 한국은 印度 다음으로 인기가 없는 나라였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70년초반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봉사지역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農村 인심만은 「세계第1」

月18만원 보수로 땀흘려

이것은 말로만 들던 한국에 직접 와서 보고 느낀것을 후진들에게 소상히 전달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게중에는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봉사도중 홀려 귀국해버린 봉사단원들도 없지 않았으나 전체의 10% 정도는 한국을 떠나기 싫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도 근무기간을 연장 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그뿐만 아니었다. 일단 한국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뒤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시 한국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동안 약20여명의 평화봉사단원들이 이역땅 한국에서 혹은 자기들 끼리, 혹은 한국인과의 결혼식을 올렸는데 전기한 메킨·타이어씨의 한국신부와의 결혼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다.

단원들은 한국에 머무는동안 월18만원 정도의 보수를 미국정부로 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액수는 한국인의 생활 수준에도 못미치는 저급 생활비였으나 그래도 이들은 그런 고생을 무릅쓰고 한국을 배우고 또 한국인에게 참미국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 주었다.

전국의 산간벽지에서 결핵과 나병관리, 모자보건사업, 직업재활, 장애자·특수교육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이들은 특히, 결핵관리 사업에는 연인원 4백40명이 참가, 한국인의 결핵이병률을 1·9%에서 1·5%까지 끌어내리는데 성공했다.

또 나병관리사업에는 그동안 80여개명이 46나환자정착촌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7천4백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小鹿島국립나환자병원등에서는간호원 또는 친구로서 아픔을 함께 나누는 헌신적인 사랑을 보임으로써 나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데 앞장섰다.

한편 그간 평화봉사단으로부터 영어교육방법을 연수받은 우리나라 중·고교 교사들의 경우 연인원 9천8명에 이른것으로 집계돼있다.

그외에도 농수산부산하 공무원 1천6백여명이 영어회화등을 그들로 부터 익혔고, 20대의 젊은이들이 전국의 55개 대학에서 전임강사직을 맡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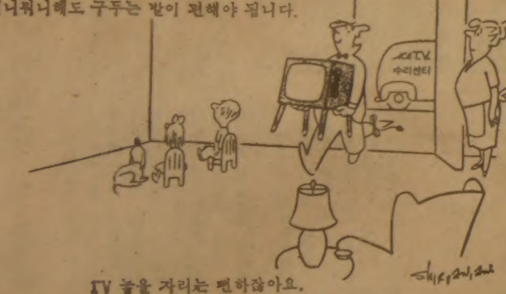
이제 평화봉사단은 숱한 치적과 이야기와 일화를 남긴채 한국을 떠난다.

그리고 저들을 떠나 보내는 우리 모두는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우의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崔成万기자〉

해외 걸작 만화

뭐니뭐니해도 구두는 발이 편해야 됩니다.



TV 놓을 자리는 편하잖아요.

詩와의 散策

봄이 오는 소리

李相和

얼었던
마음이 풀리는
날에 우리
다시 만나기로
오래전 約定하지
않았었나.

벗이여 바로
그날이 다가오는
소리… 소리를 듣는가.

어제보다는
내일이 所望하듯
우리 서로 만나
닫았던 가슴을 활짝
열고 섰그런
아침을 맞도록 하세.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선 씨앗
부터 알찬놈으로
골라야 되지 않겠나
벗이여—.

◇金性顯씨 東洋畵 『[illegible]』

蛇足

詩人 李相和는 全忠淸道사람이다. 忠淸道사람중에서도 대단한 양반집 출신이다. 그런 영향탓인지 李相和씨의 작품에는 다소의 흐트러짐을 볼수없다. 그의 작품 구석구석에 어려있는 「崇祖譜族」의 정신은 詩를 읽는 이들의 가슴을 숙연케해준다. 그렇다고 그의 詩에 現代的감각이 결여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소개하는 「봄이 오는 소리」를 읽어보노라면 「리듬이 깨어지는 어떤 흐름」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 音樂的으로 표현한다면 「한박자가 빠른 이 흐름」은 절대 제멋대로가 아니다. 李相和詩人이 세심하게 계산하고 築造해낸 그나름 대로의 리듬이 작품 첫聯서부터 유유히 흐르고 있고 그 새로운 리듬이 묘한 흥취를 일깨워주고 있다.

작품 「봄이 오는 소리」는 李相和의 詩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쉽고 常識的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쉽고 상식적인 詩想속에서도 그의 「대나무족같은 韓國的인 생각」이 강렬하게 표현되고 있다. 〈믿는 마음은 곧 봄이요, 삶의 出發은 얼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그만의 常識이 한편의 [illegible]한 詩가 됐다.

李相和는 忠州高校를 거쳐 慶熙大와 同大學院에서 詩를 연구, 「現代文學」誌의 추천을 통해 詩人이 됐고 69년 제1詩集 「숲의 言語」와 최근에 제2詩集 「여름出」을 내놓았다. 「봄이 오는 소리」는 詩集 「여름出」에 실려있는 작품중의 하나다. 〈Q〉

동궁식당

계절의 진미!
아늑하고 정서적 분위기
전통적인 홍콩식 중화요리

ORIENTAL CASTLE
동궁식당

1416 VICTORIA PK. AVE. ☎757•6334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金洪信 作
崔然石 畵
㉝

신사동 네거리는 혼잡했다. 남자와 여자들은 염치를 가리지 않고 택시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전쟁터의 피난민 같았다.

병구와 덕수는 어우러져 있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두 여자를 찾으러 다녔다.

『저기 간다.』

덕수가 소리쳤다. 병구가 사거리의 빨간 신호등은 쳐다보고도 큰 길을 뛰었다.

호루루기 소리, 구두발작 소리, 악쓰는 소리가 몰려왔다. 병구가 돌아섰다. 난처한 듯 잠시 망설였다. 덕수가 비틀거리며 뛰어왔다.

『뛰자, 어서.』

병구가 소리치며 뛰기 시작했다. 덕수가 뒤돌아보고는 정신없이 병구 뒤를 좇았다. 교통순경이 붉은 신호등을 흔들며 꽥하고 소리 질렀지만 병구와 덕수는 흘금흘금 뒤돌아 보며 뛰었다.

두 여자는 웬 낯선 사내에게 매달린 채 택시를 탔다.

『계집애들.』

덕수가 뒤돌아보고 이렇게 욕지거리를 했다. 덕수는 헛디디며 발랑 자빠졌다가 일어나며 구두 한 짝을 들고 뛰었다.

지난줄거리

운주 누나의 간청으로 송찬이는 하숙집을 나와 운주 누나네 집으로 짐을 옮기게 된다. 다혜는 송찬이가 옛날이지만 한때 미치도록 사랑한 여자집으로 옮아간다는 걸 끝까지 반대했다. 경화모은 시장을 보내는 송찬에게 친구인 병구가 찾아와 전문적인 육체사기꾼 여자들에게 걸려 54만원을 떼인 얘기를 늘어놓는다. 육체사기꾼들의 행티가 나열된다.

『눈깔 똘똘하게 굴리랬잖아…. 왜 놓쳐.』

병구가 뛰던 걸음을 조금 늦추고 말했다.

『계집애들, 어떤 놈팽이한테 매달려 갔잖아.』

『먹을 만한 게 풀어놓으니까.』

『그럴 줄 누가 알았니.』

『야, 다 틀렸어.』

두 녀석은 골목 끝에 서서 좇아오는 순경이 없자 서로 마주 쳐다보며 으르릉 거렸다.

『준 거 어려 내.』

병구가 비틀거리며 손을 벌렸다. 덕수가 힘없이 받아 넣었던 돈을 병구의 손바닥에 던졌다.

『너는 집에 가.』

병구가 등 돌리며 말하고 골목 밖으로 바깥 동정을 살폈다. 시계를 들여다 본 덕수가 난처한 얼굴로 입맛을 다셨다.

『통금 다 됐는데 어딜 가, 야.』

『그럼 왜 놓쳐, 임마.』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

『미안하다.』

『미안하다면 다야, 임마.』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해.』

『그럼 어쩔 거야?』

『어디 가서 낚아 채면 되잖아.』

『웃기구 있네. 이 시간에 어디 가서 꼬셔.』

『내가 책임질께.』

『거리에 서있는 애들은 싫어.』

『뭐, 어때?』

그들은 시계를 들여다보며 옥신각신 입씨름을 계속했다. 파장이 나 버렸지만 선뜻 집에 가고 싶지는 않은 눈치들이었다.

『이왕 버린 몸, 가자.』

병구가 네온사인에 껌벅거리는 여관 간판을 가리키며 앞서 걸었다. 덕수가 힘이 나는지 잰걸음으로 따라갔다.

여기까지 얘기한 병구가 컵을 흔들며 주스 한 잔을 더 달라고 말했다.

『되게 속 타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어찌 됐어. 그냥 들어가진 않았겠지. 덕수나 너나 되게 밝히는 놈들이니까.』

『덕수가 놔줘야 말이지. 그래서 여관에 가서 구했지 머.』

자랑스런 표정이었다. 사내들은 언제나 여자와 밤샘한 걸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특징인지도 모른다.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이… 그러다 뼈 삭어 임마.』

『야, 내가 첫아들 키웠으면 너만큼 컸을 거다.』

『시꺼. 속 타는 얘기나 어서 해봐.』

『소설 잘 쓰는 놈 있으면 근사한 거 한편 될텐데.』

『네가 써라.』

『이럴 줄 알았으면 연애편지나 실컷 써볼걸 그랬어.』

『어찌 됐나니까 그래.』

나는 그 뒷일이 괜히 궁금해졌다. 병구 녀석은 분통이 터질 일이면서도 앞뒤의 얘기를 재미있게 하려고 뜸을 들이곤 했다.

『뻔하지 머. 땀 흘리며 수고하고 구렁이 심줄같은 돈 날리고 몸 버리고 그랬지.』

『이녀석, 내 동생 주려고 했더니… 다 틀렸다, 틀렸어.』

『사내 놈들 다 그런거지 머. 어느 놈은 별 수 있니?』

두 여자는 낯선 사내에게 매달려 택시를 타고 있었다
내동생 주려고 했더니 다 틀렸어, 너란자는 별수 없군

『날 봐라. 최소한 이 정도는 도덕적으론 살아야지.』

『나두 인제 그 자채라구.』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나는 또 한번 재촉했다. 웬만한 일로 호들갑스럽지 않은 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더 호기심이 발동되었다.

『차근차근 할께. 되게 궁금하지?』

얘기하는 동안 여유가 생긴 것 같았다. 내가 궁금해 하자 녀석은 무슨 비밀스런 정보나 쥐고 있는 것처럼 굴었다.

『얘기하기 싫으면 관둬. 안들으면 그만이지.』

내가 뻗대고 나갔다. 녀석이 다가앉으며 소근거리듯이 말했다.

『그날이야 덕수놈하구 살 때는 신세로 좋 난 거구 그 뒤가 문제였어. 덕수놈이 그날 왼수 갚는다면서 나를 끌어냈거든. 향토장학금이 온 모양이야. 그래서 덕수놈이 술값 대기로 하고 내가 나머지 책임지기로 하고 너한테 전화했던 거야.』

『그날 내가 나갔던들 그런 참변은 일어나지 않았겠구나.』

『누가 아니래. 그날 네가 뻗대더라도 악착같이 불러낼 걸 그랬어.』

『봐, 임마. 내가 없으니까 당장 표가 나잖아. 언제든지 나를 모시고 다닐 각오를 이제부터 단단히 해.』

『그러지 않아도 그럴 맹세를 하고 다닌다. 제길.』

녀석은 큰 비밀이라도 털어놓듯이 얘기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번에 있었던 아쉬운 사건을 연상하며 다시 신사동의 메칸홀에 나가 술을 뻑지근하게 마셨지만 지난번에 걸려들었던 일본여자나 아마추어 춤꾼들을 꼬시지 못한 녀석들은 밤 열한시가 넘어서 메칸홀에서 나왔다.

『나가서. 기다리세요. 파트너 했던 애들 내보내 드릴게요.』

터번 두른 사내가 이렇게 말하고 병구가 찔러넣어 준 돈을 황송하게 받았다. 병구와 덕수는 바깥으로 나와 기생오라비처럼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었다.

신사동 사거리는 여전히 혼잡스러웠다. 택시 잡는 인파와 흥청하는 연파로 붐비고 있었다. 명동의 번화가 밤거리처럼 새롭게 형성되는 밤거리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 같았다.

『저, 쟤가 그 계집애 아냐?』

덕수가 역시 눈은 밝았다. 병구가 길 건너의 일본여자를 확인하고 허겁지겁 뛰어 건넜다. 덕수가 사방을 두리번 거리고는 난처한 듯이 서 있었다.

『이리와 임마.』

병구가 손으로 덕수를 불렀다.

『여기 애들 나올 거잖아.』

『냅둬. 쟤들 잡자니까.』

덕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건너 뛰었다.

두 여자는 차를 잡으려고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표정으로 길가에 서 있었다.

병구가 가슴을 펴 보이고 성큼성큼 다가갔다. 두 여자 얼굴에 술기운이 느껴졌다. 붉은 불빛에서 보는 얼굴은 지난번에 느꼈던 나이보다 훨 더 들어 보였다.

『오랜만이군.』

병구가 어깨를 쥐며 앞에 섰다.

『누구야?』

약간 혀 풀린 소리로 한 여자가 대꾸했다. 일본여자는 병구를 올려다보고 씩이 웃었다.

『와스레따 유.』

혀 풀린 것치곤 꽤 능숙한 영어였다.

『당신 누군데 그래?』

옆에 있는 여자가 병구의 가슴을 떠밀면서 말했다.

『나야, 나라구. 기억 못하겠어?』

『후 아 유?』

일본여자는 계속 영어로 씨부렁거렸다. 처음에는 일본말로 유창하게 말하던 여자였었는데.

『나라니까 그래. 며칠 전에 우리 메칸에서 만났잖아.』

병구가 씨부렁 거렸다. 며칠 전의 기억을 되살려 놓기 위해 그 때의 상황설명을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긴장한 사내 두 명이 찝어와 병구를 밀치고 두 여자에게 물었다.

『누구야?』

『모르겠어. 괜히 와서 아는체 한다니까.』

여자가 사내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

『이 친구들, 누굴 함부로 희롱하는 거야. 어서 꺼져. 대가리 피도 안마른것들이.』

긴장한 체격을 믿는 것인지 이렇게 험악하게 말했다.

『지난번에 만났잖아요. 아니까 그러는거 아닙니까.』

덕수가 갑자기 존칭어로 말대꾸를 했다. 사내들의 덩치 때문에 덕수가 고분 고분 했다.

『지난번에 만났잖아. 메칸홀에서 말야. 일본에 있다고 했잖아.』

제 덩치를 믿는 병구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나왔다. 사내들이 입이 찢어지게 웃었다.

『얘들 뭘 잘못 먹었군 그래.』

『우리가 뭘 잘못먹어요.』

병구가 지지않고 대꾸했다.

『이 친구는 미국에서 엇그제 다니러 왔단 말야. 모처럼 바람 쐬러 왔더니 별 거지같은 것들이….』

여자가 앙칼지게 말을 받았다. 병구와 덕수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분명히 일본여자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금방 온 여자로 둔갑되어 있었다.

『데칸에서 만났잖아. 지난 금요일 말야. 어려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

『이봐, 젊은 친구들. 헛소리 말고 어서 가. 이 여자는 재미동포야.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구. 엇그제 온 여자를 지난 금요일 무슨 재주로 만나나? 자네 귀신야?』

사내들이 덩어리가 되어 웃었다. 여자들이 득의만만하게 따라 웃었다.

『가라구, 어서.』

사내가 병구와 덕수를 밀어냈다. 여자들이 자리를 비키며 우리말과 영어로 욕지거리를 계속했다.

『썩은 놈들, 괜히 시비야.』

『갓뎀, 죽여.』

우리말과 영어가 뒤죽박죽이 되어 거칠게 밤하늘로 퍼져 나갔다.

『개, 쌍년들.』

병구가 응어리진 소리로 맞받아 욕지거리를 했다.

『저 썩을 놈들 봐.』

한 여자가 휙 돌아섰다.

『콱 밟아 죽여.』

혀 풀린 일본여자, 아니 갑자기 미국여자가 된 여자가 병구를 향해 몸시늉으로 밟는 시늉을 했다.

『저런, 야이 쌍갈보야!』

양쪽 토끼를 놓친 병구가 이렇게 악바치게 욕을 하고 침을 탁 뱉었다. 여자들이 돌아서서 쫓아왔다. 병구가 느물스럽게 웃었다.

『쌍놈의 새끼들, 지금 뭐라고 했어?』

미국여자가 병구의 멱살을 잡았다. 긴장한 사내들이 흘름거리며 웃었다. 재미있다는 표정이었다. 여자들은 사내들의 힘을 믿는 것인지 계속 병구를 잡아 흔들었다.

『이것들이 꿰지고 싶은가.』

『뭐라구?』

『우리 만났었잖아. 당신, 일본여자라고 했잖아.』

긴장한 사내가 버티고 있어서 더 와락하게 나갈 수 없어서 병구 이렇게 눅게 나왔다.

『너들이 언제 봤다고 이래.』

영어와 우리 말로 귀가 따갑게 떠드는 여자들은 너무 악다구니를 썼다. 병구는 여자들이 너무 악다구니를 쓰니까 혹시나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왜 유부녀를 희롱하고 그래, 이 미친놈들아. 술을 쳐먹었으면 아가리로 처먹었지 유부녀 희롱하라고 쳐먹었냐?』

흥분한 여자는 아까처럼 더듬거나 영어를 섞어쓰지 않았다.

『당신은 일본여자였잖아.』

『사람 잡네.』

『우리가 잘못 본 모양요.』

『유부녀 실컷 희롱해 놓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다냐?』

『미안해요.』

『저런 싸알머리들은 콱 밟아 쳐넣어야 하는 건데.』

병구와 덕수가 사태를 더 크게 끌고 나가기 싫어 이렇게 양보를 했지만 여자들은 사내들에게 자신들이 미국서 온 여자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졌다.

『잘못했다잖소.』

여자들은 멱살을 잡았다 놓았다 하면서 계속 욕지거리를 했다.

『내가 네 새끼냐?』

병구의 성깔이 톡 불거져 나왔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나야 나, 며칠전에 만난 그사람이라구…기억 못하겠어
연약한 여자를 왜때려…"나는 네가 깡패인줄 알았어"

『어어! 이것들이.』

사내들이 다가섰다.

『쌍년들이, 한국새끼가 뭐야, 이년들아. 참다참다 못봐주겠네. 형씨들, 이것들이 저 따위로 말하는데도 그 편 들 거요?』

『되구만 새끼들이 뵈는 게 없어.』

『한국사람 긍지 좀 가지슈. 저년들 아가리로 까부는 거 보슈.』

『허, 이것들을….』

두 사내가 주먹부터 뻗었다. 이미 각오하고 있던 터였다. 병구가 살짝 비켜서며 건물 벽에 세워져 있는 방화봉을 꼰아 잡았다.

『어쭈, 제법 놀구 있네.』

사내가 발길질을 했다. 병구의 방화봉이 두 사내를 후려갈겼다. 한 사내가 고꾸라져 기었다. 다른 사내가 발길질을 하다가 발목을 잡고 모로 자빠졌다. 병구는 사정없이 내리 쳤다. 두 사내가 엉겁결에 도망가 버렸다.

눈 크게 뜬 여자가 병구를 노려보고 서 있다가 바락바락 소리 질렀다.

병구가 달겨들어 두 여자를 주먹으로 후렸다. 힘없이 쓰러진 여자에게 구둣발로 또 걷어찼다.

『아악! 사람 살려.』

그러나 더 악쓰지는 못했다. 병구가 한번씩 더 걷어찼기 때문이었다.

『뛰자.』

병구가 몰려드는 사람들을 비집고 골목으로 뛰었다. 덕수는 그 반대골목으로 질주해 들어갔다. 병구는 골목 숨차게 골목길을 돌아 숨길 골목으로 막 뛰어드는 곳에서 병구는 멈칫 섰다. 무지막지하게 덩치 큰 사내가 병구의 멱살을 움켜 쥐었다.

『저, 사실, 저, 사실.』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멱살을 너무 움아 쥐어서 말이 목구멍으로 나오지 않았다.

뒤에서 강도 잡으라는 소리가 나면서 급한 여자 발짝 소리가 들려왔다.

『어마, 장선생님.』

일본여자 행세하던 여자가 병구의 멱살을 잡고 있는 사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속사포처럼 뒷말을 이어 나갔다.

『이 새끼가 나를 희롱하다가 무조건 패고 도망쳤어요.』

『너 깡패냐?』

덩치 큰 사내가 병구의 목덜미를 한손으로 쥐고 흔들었다. 워낙 좋은 체격이었다.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거인이었다.

여자들이 달겨들어 병구를 물고 할퀴기 시작했다. 장선생이란 친구는 고양이 앞에 쥐 내민듯이 병구를 움켜쥐고 여자들에게 내맡겨 주었다.

『아닙니다. 제발 좀 놔 주세요. 제발 좀 놔주세요.』

병구가 안타깝게 소리 쳤지만 장선생이란 친구는 놔주지 않았다. 여자들 말만 믿고 있었다.

『저 새끼가 애보고 일본여자라고 우기면서 붙잡고 별 수작 다했어요. 우릴 이렇게 무자비하게 패잖아요.』

병구는 무방비로 여자들에게 쥐어뜯긴 채 끌려 나갔다.

『재, 버린 가야 돼요. 우선 파출소에 처넣고 봐요.』

일본인 행세하던 여자의 얼굴이 부어 있었다. 병구는 체념한 채 파출소 쪽으로 끌려갔다. 끌려가면서 병구는 학생이란 사실과 전후 사정을 대략 장선생에게 얘기했다. 장선생은 난처한 듯이 입맛을 다셨다.

『난 자네가 소매치긴 줄 알았어. 그렇지만 연약한 여자를 패면 되는가. 이 사람아. 일단 다쳤으니까 저 여자들이 하자는대로 해줘야 하잖아. 차암….』

앞 뒤 사정을 듣고나서 장선생은 이렇게 난처해 했다. 장선생은 알고보니 레슬링 헤비급 선수였다.

『좋아, 젊은 사람이 그럴 때도 있지 머. 내가 잘 얘기해볼께 치료나 해주자.』

장선생은 여자들을 떼놓으며 젊은이를 무조건 파출소에 넣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 주었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會長 張康在
發行人 洪惟善
編輯人 鄭泰演
印刷人 李基和
編輯局長 權赫昇

溺死95%가 내륙水面서

국교생이 70%나 차지

내무부集計 원인…不注意·水泳미숙등

수백만명이 물을찾는 여름복더위에 다소 익사사고가 생기는것을 예삿일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나라의 익사사고 유형을 보면 단순히 넘길수없는 구석이있어 충격적이다. 22일 내무부 집계에 의하면 지난 6~7월 2개월사이에 전국에서 모두 3백35명이 물놀이하다 아까운생명을잃었는데 이들중 95%인 3백16명이 강변이나 하천등지에서 숨졌고 해수욕장에서의 희생자는 5%에 불과한 18명뿐이었다.

急流·土砂채취 安全표지도 드물어

또 연령별로는 10세이하가 37%인 1백24명, 10~20세 사이가 35%인 1백18명, 20세이상이 28%인 93명이었는데 이들중 국민학생 연령층이 전체의 70%였다.

이는 주로 바닷가 해수욕장등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부주의로 익사사고를 빚는것이라는 통념과는 정반대 현상이어서 바캉스·피크를 앞두고 그 예방책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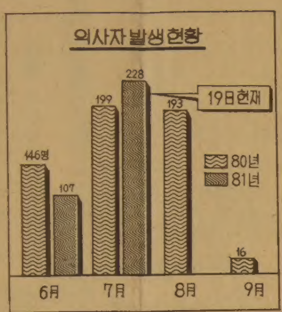
원인별로는 부주의와 수영미숙이 86%로 2백82명이었고 심장마비가 48명(14%), 술마시고 뱃놀이하다가 숨진사람이 5명(1%)으로 모두 안전수칙을 지키지않았다가 숨진것으로 밝혀졌다.

익사자수는 6월이 1백7명, 7월들어 19일현재 2백28명인데 이는 지난해 6월의 1백46명에비해서는 39명이 줄었으나 작년7월한달의 1백99명보다 14.6%가 는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 익사자가 급증한것은 장마뒤에 불볕더위가 계속돼 물놀이인파가 급증, 지난19일 하룻동안에만도 65명이 익사하는 기록을 세웠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익사사고의 대부분이 내수면에서 발생하고있는것은▲우리나라의 강과 하천이 굴곡이 심해 급류나 소용돌이가 많은데다 ▲자갈, 토사등을 채취한후 원상복구를 하지않았고▲이에대한 위험부표나 표지판이 제대로설치되지않고 있는 현실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전국시·도와 경찰에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강이나 하천의 물길이등을 실측,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고정배치시키든지「수영금지」「위험지역」이란 푯말을붙여 더 이상의 익사자가 발생하지않도록 지시했다.



企業의 利子부담 과중하다

韓銀 80년經營분석

投資자본 83%가 빚…이자율 18.7%

71년후 최고、日의 2倍

우리나라 기업들의 차입금 평균이자율이 18.7%나돼 수익률을 초과하는 무거운 이자부담을 안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0년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기업들의 차입금 평균이자율이 기업경상이익률 9.1%를 2배이상 상회하는 높은수준에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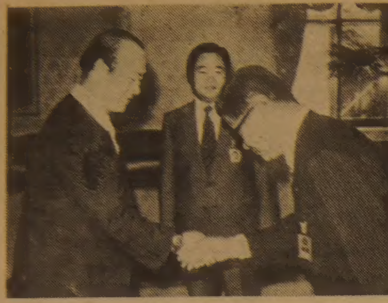
차입금평균이자율은 기업들이 빌어다쓴 은행대출, 해외차관, 회사채, 私債등 모든 차입금의 평균적인 이자율로서 자본조달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비율이 총투하자본에대한 수익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경상이익률을 크게 초과하는상태에서는 기업들이 이익을발생시키기 어렵다.

부하자본에서 생기는 수익보다 그 자본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크기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기업들은 총 투하자본의 83%를 차입금에의존하고 있기때문에 차입이자율이 이처럼 높아서는 이익을 기대할수 없다. 높은 이자율때문에 지난해중 매출액경상이익률은 71년이후 최초로 적자를나타내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

차입금 평균이자율 18.7%는 71년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日本의 7.7%에 비해서도 2배이상 높다. 차입이자율은 73년이후부터 점차 높아지는추세를보여 73년 8.6%, 74년 10.5%, 75년 11.3%, 76년 11.9%, 77년 13.1%, 78년 12.4%, 79년 14.4%를 각각 기록했으며 80년에 18.7%로 크게 높아졌다.

이자율이 이처럼 높아진것은 환율인상에따른 외채이자부담가중, 고금리로인한 은행대출 이자의 증가, 기업들의 과도한 외부자금의존등인 때문으로 한국은행은 풀이하고있다.

이자부담이 과중한것은 기업들의 총비용에대한 금융비용의 비율에서도 잘나타나고 있는데 이 비율은 7.1%로 72년이후 가장높은 수준을기록했다.



泰國각료·日議員團 全대통령、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22일상오 泰國의 티나로른·반두그라비科學기술에너지省장관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李正五과기처장관과 아사·부나프라뿌앙駐韓泰國대사가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일본衆議院의 야마시따·간리(山下元利)운영위원장일행 5명을 접견했다. 이자리에는 李鍾賛국회운영위원장이 배석했다. (사진)

宮澤 가을說否定

9月 정기閣僚회담뒤에 韓日頂上회담 결정

【東京22日UPI·AP聯合=聯】일본은 빠른시일안에 韓日정상회담을 갖기로 희망하고있다고 미야자와(宮澤喜一)관방장관이 22일 말했다.

미야자와 관방장관은 그러나 이번가을 全斗煥 대통령과 스즈끼(鈴木)수상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것이라는 오타와發외신을 부정하면서 『韓日간의 정상회담은 적당한때에 열릴것』이라고 말하고 그시기는 8월의 韓日외상회의, 9월의 정기각료회의가 끝난뒤 결정될것이라고 덧붙였다.

外務委 4國巡訪

국회外務委의 朴東鎭 국회외무위원장을 단장으로 河舜鳳 李世基(이상 民正) 柳漢烈(民韓) 林德圭의원(국민)등 해외시찰단은 자메이카 베네수엘라 모로코 스페인등 4개국을 순방하기위해 23일 하오 出國한다.

非理、類型別로 색출

全대통령지시로 長官책임하에 뿌리뽑게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맑고깨끗한 정부를구현하라는 全斗煥 대통령지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있다.

南悳祐국무총리는 22일 하오4시 총리실에서 徐廷和내무, 李鍾元법무, 李奎浩문교, 金容烋총무처장관、俞學聖국가안전기획부장과 金恩昊문공차관、安武赫사회정화위원장、羅熙弼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부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열고 1시간동안이에대한협의를가졌다。이날회의에서는각부처의 고질적인 부조리와 非理의 類型을 스스로 밝혀내 각부처장관책임하에 拔本塞源한다는 원칙을세우고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막을수있는 법적인 조치와함께 행정적인 조치를 검토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날회의에서는 또 下位職공무원의 생계에 보장을통해 책임의식과 사기를 고취시키면서 감독과 단속을병행키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美 구축함1척 곧 한국에 販賣

【워싱턴21日=聯】미국은 북괴의 해군력증강에 따라 한국의 해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에 1천4백80톤급 구축함 1척을 판매키로 결정했다고 미국방성대변인이 21일 말했다.

"신나는 방학이다" 개구장들의 환호

『야 신나는 여름방학이다』—。22일상오 서울시내 3백개 공·사립국민학교 어린이 1백18만여명이 일제히 환호성을지르며 교문을 뛰어나갔다。운동장이 넓은 학교에선 운동장에서、그렇지못한 학교는 교실에서 확성기를 통해 각각 종업식을 가졌다。8월24일 개학까지 한달남짓。이동안이 불안해진 선생님들은 「방학중의 주의사항」에대해 목청을 높였다。『바다나 산에갈 때는 반드시 어른과같이』『철길이나 차많은데는 가지말라』『화약、딱총、모형주사기를 갖고놀면 안된다』『배탈에 조심하라』『혼자서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습관을 키워라』『불량만화대신 동화를 읽어라』『각종안전표지판을 곡알아두라』『불우한 이웃을돕고 양로원을 찾아가라』…선생님말씀은 끝이없었다。【사진은 22일상오 서울弘濟국민학교】

인플레·失業 最優先과제

財政축소권장·美 高金利 당분維持

西方경제頂上회담 폐막聲明

【오타와21日=聯】미·영·불·서독등 서방7개선진공업국은 21일 이틀간에 걸친 경제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 고금리가 세계경제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플레와 실업퇴치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7개국정상들은 특히 기록적인 고금리추세가 현재의 수준으로지속될경우 서방국가들의 생산적투자를위협하게될것이라고 경고하고 인플레및 실업률인하가 서방의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이불가분의 문제들이 동시에 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개국정상들은또한무역자유화정책을 지지한다는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대소전략무기판매를 보다·면밀히 감시할것이며 수입석유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키로했다고 이성명에서 밝혔다.

이들은 이밖에 각국정부의 지출을 줄일것을촉구하고 금리와 환율의급격한변동을 극소화시키는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西方7개국정상들이 이틀째인 21일 회의에서▲미국의 고금리추세가 서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제3세계지원방안▲대동구교역문제등을 중점논의, 미국의 고금리를 낮추고 달러화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것이 바람직하다는데 합의, 이같은 공동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미국이 처음으로 다른 서방국가들과 함께 제3세계지원을 위한 국제협상을 준비키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오타와22日UPI=聯】레이건 미대통령은 22일 ▲서구맹방들로부터 무역을 보다 자유화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고 ▲미국의 고금리정책을 강력히 방어한가운데 서방7대공업국 경제정상회담을 끝마쳤다.

로널드·리건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의 금리정책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고 말했다.

日、對韓 經協확대

스즈끼、레이건에

韓半島안정 全亞洲에 중요

【오타와21日=聯】오타와 서방선진국경제정상회담에 참석중인 레이건미대통령과 스즈끼(鈴木善幸)일본수상은 21일 별도회담을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전아시아의 평화와안정에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회담에참석한 미정부관리가 밝혔다.

스즈끼수상은 이날 몽트벨로성에서 열린 레이건대통령과의 조찬회담에서 미일관계및 국제정세를 논의하는가운데 한반도문제에 언급、일본은 駐韓미군을 계속존속시키기로한 미국의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스즈끼수상은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확대할것이며 올가을에 全斗煥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문제를 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고 이관리는 전했다.

81년 文化藝術賞 施賞계획을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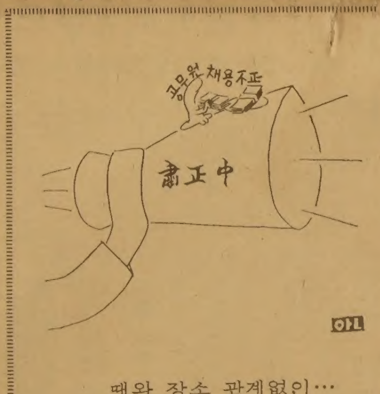
文公部

문화공보부는 문화예술인들의 예술활동과 창작의욕을 진작시키고 문화예술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인사를보상하기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大韓民國文化藝術賞의 금년도 시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로 13회째인 이賞은 문화(신문·방송·출판)문학(시·소설·희곡·평론·아동문학·수필·번역) 미술(회화·조각·서예·공예·건축·사진) 음악(국악·양악) 연예(연극·무용·영화·연예)등 5개부문으로 대통령상장과 상금 각2백만원이 지급된다.

추천은 기관 단체 타인본인등 누구든지 할수있으며 시상식은 오는10월20일 문화의 날에 갖는다.

社會漫評



때와 장소 관계없이…

地平線

일전 총무처가 바꾸기로 한 행정용어 1천35개중에「신입」(申込)이란 낱말이 있었다。일본식 漢字語를 우리발음으로 옮겨 쉽게 쓰이던 말이다。총무처의 순화방안은 이 말의 뜻을 좇아「신청」또는「청약」으로 한다는 것이었다。▼「신입」과 비슷한 낱말로「지입」(持込)이란 것이 있다。이 역시「모찌꼬미」라는 일본식 漢字語의 우리말 발음이다。일반적인뜻은「가지고 들어감」또는「반입」。이말은「신입」보다 쓰임이 많은 듯하고 제법 정착이 된 느낌마저 없지 않다。자동차운수업에 지입制란 것이 성하기 때문인데、어느틈엔가 그 표기가「持入」으로 바뀌었다。국적불명의 새용어다。

▼어떻게 표기하건、지입制란 타인의 사업名義를 빌어 운수사업 형태로、우리나라 운수사업을 좀 먹는 元凶중의 하나로 꼽힌다。그래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제26조에 이런 明文을 두고있다。「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못한다」어떤 형태의것이든 지입制를 금지한다는 취지다。다른 해석의 여지는 전혀 없다。

▼이 조문을 위반하여「50만원이하 벌금」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이것으로도 부족하여、교통부는「處分要領」이란 훈령으로、지입制금지를 위반한 사업자는 일부 또는 전부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놓았다。업자로서 보면「極刑」이나 다름없는 중벌이니、지입制가 그만큼 해롭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택시나 트럭이 지입制로 운영되고있음은 버젓한상식이며、그렇다고처벌받은사업자가있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다。오히려 몇백만원자금으로 사업면허를 받으면、지입料를 받아 번창하고、택시의경우는 1대의 프리미엄이 1천만원을 호가하는 실정이다。그들에서 운수사업의 기업화·합리화는 이룰길이 없다。利權중에서도 맹랑한 利權이다。

▼그래도 택시에 대해서는 한시택시制등의 응급 처방이 있었다。그성과는 후속조치의 당부에 달렸다고 하겠지만、트럭은 그 고질을 방치한채있다。이런 고름집이 터진것이、요며칠사이 트럭운전사의 농성사태다。작년 권력형부정 수사에서도 트럭利權이 말썽됐던것을 생각하면、이것은 사회정화 次元의 문제일수도 있다。업계의 깊은 내막이야 어떻든、교통부는 법을 법대로 집행할 책무가 있으며、법대로 하는것이곧 사회정화임을 지적해두어야 할것같다。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10
은 : 온스당 US 8.8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주간女性

스타☆미용실

파마 스페샬 세일: $28.00
(기간 : 7월말까지)
예약 : 741-4410
시간 : 아침9시~오후8시
휴업 : 매주 일, 월요일
주소 : 2437 FINCH AVE.
WESTON, ONT.
(Finch & Weston)

Hair Stylist-Keo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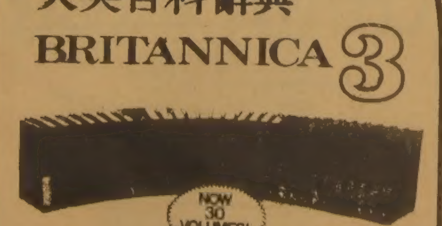
< 금주의 스페샬 >
(Cash & Carry에 한함)

CASH & CARRY SPECIALS FOR THE PERIOD JULY 20 to JULY 31

Coca Cola, Hi-C, Sprite 10 oz. Cans		Net 5.99 Case
Allan's 3 for 5¢ Longtubes 288 count		2.20 Box
Fruitella	36/25¢	4.77 Box
McToffee	36/40¢	9.50 Box
Y & S Cigars, Pipes, Chews	48/10¢	2.89 Box
Dad's Soft Oatmeal Cookies	12/30¢	2.09 Box
Lifesavers Lollipops	96/10¢	5.99 Jar
Garbage Candy	24/25¢	3.75 Box
Gobstoppers	24/25¢	3.85 Box
Moirs Bag Candy	24/25¢	3.45 Box
Pocket Kleenex	12/12's	14.09/case
Chapstick	24's	11.32 Card
Hickory stick Fire Starters		67¢ each
Light Bulbs (GE)	12/2's	7.59 case

※세일즈맨모집 2명 가게에 경험 있으신분 환영
920 CALEDONIA RD. 789-7214
MR. 김
DOMINION SMALLWARES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전30권)
교민에게 특별판매
● 교회, 학교, 단체등엔 특별할인
●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 모국의 동생, 스승, 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 745-5485 미세스 황

美高金利의 衝擊波

7個國 頂上회담에 비친 世界經濟

【워싱턴22日=曺洋煥특파원】 서방 7개국 경제정상회담은 21일 동굴봉쇄한 오타와 선언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회의를 끝맺었다. 오타와 공동선언은 가장 관심을 끌었던 미국의 높은 金利에 관해서는 그것이「기록적수준에 이르고있어 오래 지속되면 생산적 투자를 위협한다」는 것으로 온건하게 표현했다. 서독,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등 유럽국가들은 年17·5%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이자율에 따른 달러貨의 강세에밀려 그들의환율을 올리고 경기후퇴와 실업을 가져온 불만을 줄이는데까지 줄였다. 서방의 정치단합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서방경제전문가들간에 논의돼온 미국의 높은 이자율이 서방경제정상회담의 정상의제로 격상되고 유럽성장경제에 저해요인으로 꼽혔다. 『한나라의 이자율수준과 변동이 다른 나라들의 경제안정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알고 있다』는 공동성명귀절은 바로 미국의 높은 이자율을 빗대어 한말이다. 슈미트서독수상은 서독이자율이 『예수가 탄생한이래 최대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각국 景氣후퇴·失業증가

美선 壓力불구 讓步안해

美·유럽意見분열속 큰성과없어

작년도 9·4%였던 서독이자율이 금년도에 12·9%로 껑충뛴것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것으로 은근히 돌렸다.

레이건 대통령이 높은이자율, 감세, 예산삭감등 통화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것이 최대우선경제정책인데 반해 인플레이션보다 실업을 줄이려는것을 더우선적으로 내세우는 미테랑프랑스대통령은 미국의 높은 이자율은 프랑스, 유럽 그리고 세계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준다고 경고했다.

미테랑 대통령은 英·佛·서독의 실업률은 사회불안의 폭발점에 이르고 있다고까지 표현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작년도 7·1%, 금년도는 7·3%로 변화가 없으나 영국의 실업률은 작년도에 7·5%에서 11·3%로, 프랑스는 6·6%에서 8%로, 서독은 3·3%에서 4·6%로 높아지고 있는데 모두 미국의 高金利정책에 영향받았다는 불만을 쏟고있다.

레이건행정부는 이에대해 미국이 이자율이 높은것은 카터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며 인플레이션이 금년 하반기에 9%로 낮아지면 이자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유럽국가들의 실업률과 이자율이 높은것은 미국의 영향보다는 선진공업국들의 일반적 …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산이라고 주장한다.

오타와회의에 참석한 고위외교관은 이자율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간의 의견분열로 이번 7차서방경제정상회담은 과거 어느회담보다도 의견이 분열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평했다.

작년도의 베네치아, 재작년의 東京회담에서 에너지위기가 중심의제가되어 그위기의식 바탕위에서 서방 7개국이 단합할수 있었으나 이번 오타와회담에서는 너무 문제는 뒤로밀쳐졌다. 작년의 베네치아회담때까지만 하더라도 7개국지…

국과 유럽국가들이 분열되듯이 7개국지도자들은 각기 그들 스스로의 국내경제문제를 먼저생각하고 다음에 서방이 당면한 문제를 고려하는 입장이 되었다.

미국의 높은이자율이 단기적으로는 유럽국가들에 경제곤란을 안겨주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두단위숫자에서 한단위숫자로 내려오면 유럽경제도 도움을 주게된다고 레이건 대통령은 강조한다.

인플레이션억제로 미국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역점을 두고있는 레이건대통령은 우방유럽국가들의 압력 …

레이건은 서방지도자로서 오타와회담에 나간것이 아니라 미국경제를 회복하려는 美행정부 고위관리들은 오타와회의의 출발에 앞서 번회담에서 거둘수있는 가장큰 성과는 서방지도자들이 상호간에 知面을 넓히고 해결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국민들에게 미리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였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지도자들은 비록 이자율 문제해결에 별 기대를 걸지 않고 오타와에 왔지만 이 감때는 미국이 자율이 만간 인하될 전망없이 …

도자들은 서방을 구제하면 그 서방이 그들 국가들을 구제하게 된다는 공통철학을 갖고있었다.

그러나 금년도는 미국의 높은 이자율을 둘러싸고 …

오타와회담에 처음부터 큰 기대를 걸지않았다.

레이건대통령은 소련및 東歐圈과의 무역에서 방전략물자와 고도의 기술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

경제회의를 증진한다는것은 서방경제회담사상 처음으로 6개국의 미온적 호응을 받아 공동성명에 담는데 성공했다.

캐나다, 프랑스, 일본은 …

그대신 가난한 제3세계국가들에 더많은 원조를 약속한다는 내키지않는 미국을 끌어들였다.

서독이 소련으로부터 연가스공급을 받게되는 4천8백㎞길이의 유럽간 가스管건설을 위한 소련과 오래끌어온 서독과 소련간의 협상을 취소케하려고 미국이 석탄및 핵에너지등 공급하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슈미트수상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회담이 처음으로 서방경제 국제무대에 나선 레이건 대통령의 외교솜씨를 묻는 질문에 독수상은 그냥「OK」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미국언론은 레이건이 이자율로 우방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으면서 『도드라운 어조와 자세』, 그리고 겸허한 설득력으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좋게 평가했다.

◇西方 7개선진공업국의 首腦들 오타와 西方 7개선진공업국 경제정상회담에 참석한 각국 수뇌들。左로부터 스즈끼(鈴木)日수상, 슈미트 西獨수상, 레이건美 대통령, 한사람건너 트뤼도 캐나다수상, 미테랑 佛 대통령, 대처 英수상, 스파돌리니 이탈리아수상。 【21日오타와(캐나다)21日AP聯=聯】

國際焦点

美·日、「불편한 關係」해소

美·日、오타와서 두차례 頂上회담

「非核原則말썽」등 견해차 좁혀

5월 共同성명도 再確認한 셈

韓-美-日 3角협력체제의 기반마련

【東京22日=宋孝彬특파원】 레이건 美 대통령과 스즈끼(鈴木) 일본수상은 21일 오타와에서 두번째 美日정상회담을 갖고 소원했던 美日관계를 정상화시켰다. 레이건 美 대통령과 스즈끼수상은 5월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가진뒤 2개월만에 재회, 한자리에서 ①5월의 美日 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②韓日양국의 협력관계가 아시아의 평화안정에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지난5월 美日정상회담후 스즈끼 수상은 美日의 동맹관계와 일본의 국제적역할을 명시한 美日공동성명의 기초과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뒤따라 이또(伊東)외상이 사임하여 일본정국이 동요하고 美日관계를 긴장시켰다.

그후 라이샤워 前駐日대사의 核도입발언과 非核3원칙논쟁, 그리고 방위증강문제등을 에워싸고 美日간의 견해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이또前외상에 이어 등장한 소노다(園田) 외상도 美日공동성명은 조약과 달라 구속력이 없다고 후언하여 美日간의 거리는 더욱 넓어졌다. 그런 상황속에 후꾸다(福田) 다나까(田中) 前수상등 自民黨元老들의 주도로 美日간 거리를 좁히는 작업이 시작됐다. 부시美부통령과 소노다외상, 헤이그국무장관과 소노다외상의 회담에 이어 와인버거국방장관과 오오무라(大村) 방위청장관이 만나 견해차를 조정했다.

스즈끼수상은 맨스필드 駐日美대사를 통해 레이건과의 회담을 요청했고 미국측도 그이상의 美日관계악화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아래 정상회담에 응했다. 스즈끼수상은 이번회담에서『한마디 곡해를 말이 있다』 5월의 美日정상회담은 美日간의 장래를 위해 의미깊은 중요한회담이며 일본은 美日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다.

스즈끼수상이 이처럼 5월 정상회담의 의의를새삼스럽게 강조하고 나선것은 美日공동성명을 에워싸고 불편해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것으로 평가되고있다.

레이건은 美日간의 현안문제인 일본의 방위력증강과 그 기본이 되는 對蘇인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이는 선진 국경제정상회담에서 7개국이 소련의 군사력증강에대한 對蘇인식에 합의했고 와인버거、오오무라회담에서도『미국측의 요청에따라 방위력을 조속히 대폭 증강하겠다』는 일본측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美日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韓日정상회담이 거론되어 韓·美·日의 3각협력체제를 구축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스즈끼 수상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全斗煥 대통령과 빠르면 가을, 늦어도연말까지 韓日정상회담을 열것이라고 밝히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아시아의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평가하는한편 對韓經協의 적극적인 추진을거듭 표명했다.

韓日정상회담은 74년8월 고陸英修여사의 장례식에 참석한 다나까수상이 朴正熙 대통령을 만난것이 처음이었으나 실질적인 韓日정상회담은 금년 가을이나 연말, 스즈끼수상이 방한한다면 처음 실현되는 셈이다.

◇뉴욕 산책하는 81년 미스유니버스

81년도 미스유니버스로 뽑힌 베네수엘라의 이레네·사에즈·콘데양이 NBC·TV의 투데이·쇼에출연한뒤 뉴욕중심가를 거닐고있다。【뉴욕21日AP聯=聯】

博士따고도 不安한 나날

日에 5천여명…일자리없어 苦悶

일본에는 박사학위를 획득하고도 대학조교수나 전임강사자리를 얻지못해 연구소에서 불안한 나날을보내고있는 O·D(Over Doctor)가 5천명이나 돼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O·D의 평균연령은 30·2세, 41세인 최고령자는 14년동안 일정한 직업없이 가정교사생활등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O·D문제연구단체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약5천명의 O·D가 일정한 전임강사직이나 연구직을 얻지 못한채 무보수 또는 월5만엔의 연구비를받고 연구실에 머물러 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海外토픽

인기끄는 判例銀行 유리스

西獨、乳房"너무크다"에"그럴수도"

西獨법무성안에 설치돼 있는 유리스(JURIS)라는 이름의 컴퓨터는 스트립쇼댄서가 유방이 너무 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될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즉각『경우에 따라서는 그럴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법무성 당국은 최근 유리스(법률정보시스템) 컴퓨터의 기능을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유방이 크다는 이유로 해고된 한 스트립쇼댄서가 변호사를 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시험케이스로 이용했다. 유리스는 현재 11만6천건에 달하는 법원판례를기억장치에 담고있는 일종의 자료은행으로서 이용자들은 통상적 조사방법으로는 수주일 걸릴 정보를 손가락끝을 놀려 즉석에서 얻을수있다. 【獨=聯】

오늘의 歷史 〈23일〉

▲壬午軍亂 발발	(1882)
▲로잔조약체결, 그리스·터키戰 종식	(1923)
▲소년운동가 方定煥 死去	(1931)
▲이집트, 쿠데타 나기브준장 실권장악	(1952)
▲그리스軍事政權, 7년만에 民政복귀	(1974)
▲제네바회의서 라오스 중립선언	(1962)
▲시내버스 한강서 추락, 33명 사망	(1978)

"48시간내 戰鬪中止를"

유엔安保理 中東결의안 채택

이·PLO 休戰同意說

아랍國 對이制裁 모색

【유엔본부22日AP=聯】 유엔안보리는 22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이 48시간이내에 레바논영내에서의 전투행위를 중지할것에 동의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5개 안보리회원국들은 이결의안에서 레바논-이스라엘국경에서 현재 벌어지고있는『모든 무력공격의 즉각중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쿠르트·발트하임유엔사무총장에게도『결의안 채택후 48시간 이내에 가능한한 빨리 휴전에 관한 보충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직후 진·J·커크패트릭 유엔주재미대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결의안이『명문화』된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필립·하비브美중동특사가 현재 활발한 중재외교를 펴고 있는만큼 48시간이내에 休戰이 실현될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발트하임총장은 이날 안보리 연설을통해 팔레스타인·게릴라지도자 야세르·아라파트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과 이스라엘측이 이미 휴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21일의 레바논사태로 안보리회의에 참석했던 유엔주재아랍국대표들은 이날 안보리결의안 통과직후 아랍국들은 예상되는 미국의 거부권행사에도 불구, 대 이스라엘제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蘇製 무기휴대한 쿠바女軍 蘇製무기를 휴대한 쿠바女軍이 지난달 革命기념일을맞아 퍼레이드를 벌이고있다。【아바나DPI=聯】

이機、레바논空襲 6일째

PLO據點 軍事基地맹폭

【베이루트·텔아비브21日AP=聯】 유엔과 미국및 일부아랍국가들의 다각적인 휴전노력에도 불구, 이스라엘은 21일 연6일째 레바논내 팔레스타인 거점들을 공습, 팔레스타인 난민촌 일대의 군사기지촌과 2개소도시들을 폭격했으며 이날 공습에서 이스라엘전투기 1대가 팔레스타인 대공포화에 맞아 격추됐다.

사우디、레바논에 1억2천만弗제공

【베이루트21日AP=聯】 아랍권의 경제적후원자인 사우디는 최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레바논의 채무상환을 지원하기위해 1억2천만달러를 추가 공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관영사우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베트남에 海·空軍 基地구축

"蘇、中共南部國境위협"

美國防省、上院小委서증언

【워싱턴21日聯合=聯】 소련은 동남아에서의 세력팽창을 위한 불길한 역할을 점차 증대시키는 한편 베트남에 해·공군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중공의 남부국경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리처드·아미티지 미국방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가 27일 밝혔다.

아미티지 부차관보는 이날 상원 동아시아 문제소위원회에서 소련이 베트남의 다낭공군기지및 캄란만에 건설한 해군기지를 교두보로 중공의 남부국경에 직접적인 공격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對베트남 지원을 통해 인접타이에 대한 베트남의 무력침공가능성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고 증언했다.

아미티지부차관보는 소련이 베트남에 세력발판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타이의 공산화위협목적외에도 ①對중공측면공략위협을 제기하고 ②일본을 포함한 동아와 서남아의 석유자원을 연계시켜주고 있는 주요해양로를 봉쇄하기위한 전초기지를 확보하며 ③인도지나반도의 경제적 피해를 자국전략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음계때문이라고 설명했다.

中央阿에 비상사태宣布

2개野黨 不法化 간부들체포

【방기(中央아프리카共和國)22日AP=聯】 중앙아프리카공화국대통령은 데이비드·대코 정치적 목적의 폭탄테러가 발생하매 뒤이어 양당의 활동을 통제한지 3일만인 21일 전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코 대통령은 지난 18일밤 2개 야당을 불법화시키고 다른 1개야당의 활동을 정지시켰으며 이들 야당의 지도자들과 고위간부들을 체포하도록 명령했었다.

야당에 대한 이같은 강경조치는 프랑스국경일인 지난 14일 수도인 방기의 한 만원극장에서 폭발물 2개가 터져 프랑스人 1명을 포함한 3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에 뒤이어 취해졌었다.

이 폭탄공격은 지난 18일활동 금지된 중앙아프리카국민해방전선의 소행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망명중인 이디·랄라의 지시를받은 이해방전선은 성명을 통해 지난 79년 대코 대통령을 집권시킨이래주둔해오고 있는 프랑스군대가 전면철수할때까지 공격행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메아리

뉴욕 5번가에 자리잡은 반즈 앤드노블서점엔 1백만권 이상의 서적이 진열되어 있다. 이 서점은 캐나다의 CN타워, 영국의 포일즈와 함께 세계3대서점으로 꼽힌다.

서가가 48㎞에 달하는 포일즈서점은 6백만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스스로 세계최고임을 자랑한다. 1백만권의 책이라도 국내 최대도서관인 서울대중앙도서관의 장서보다 많은것이다. 도서관의 규모는 미국의회도서관이 으뜸 간다. 서적류가 1천8백만권이 넘는다.

현대의 학술과 산업은 豪雨처럼 쏟아지는 자료홍수속에서 성장한다. 책만이 아니라 서류와 각종자료에 담긴「정보」도 소홀히 넘길수 없다. 미국의 석유재벌 엑손社가 에너지省에 제출하는 1회 보고서는 44만여 페이지에 달한다고한다. 책으로 치면 1천권의 분량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정보싸움은 현대기업의 悲劇인 산업스파이라는 해적행위까지 빚어낸다. 서양에서 일어났던 가장 충격적인 산업스파이 사건의 하나는 1961년 아메리칸 사이아나미드社의 제약비밀이 이탈리아로 흘러간것이었다.

학술정보銀行

일본에선 10여년전 미쓰이 폴리케미컬공장에서 큰 폭발사고가 난일이 있다. 회사측은 처음 소방차의 접근까지 막았다. 폭발피해보다 기술정보의 기밀 보호에 신경이 더 쓰였기때문이다.

학술적인 업적이나 기업의 성쇠는 결국 새로운 정보의 양과 그 질의 선택에 좌우된다고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어떤 사회과학자는 지난30년간에 해당하는 사회의 발전과 변화가 오늘엔 3년안에 이룩된다고 주장한다.

정보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도「학술정보은행」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일보 22일자11면). 서울대 도서관등 5개기관이 협력하여 선진국의 학술·산업자료를 빨리 수집하여 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맡게된다.

컴퓨터에 서적·학술논문·특허등을 기억시켜 요구가 있으면 즉각 응답케 한다니 자료난의 어려움을 덜어주리라는 기대가 앞선다.

리 수집하여 …「도서관은 학문의 모든 애환을 아는 일반통념으론「도서관은 책을 소장하고 시험공부나 하는 곳이」라는 말이 과장스럽지가 않다。정보전쟁을 이겨내기 위해 이 시스템이 하루속히 궤도에 오르기를 바란다.

CHINA HOUSE TAVERN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CHINA HOUSE / Bathurst / Bloor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6-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 : 30AM~6 : 00PM ●월~토 11AM~7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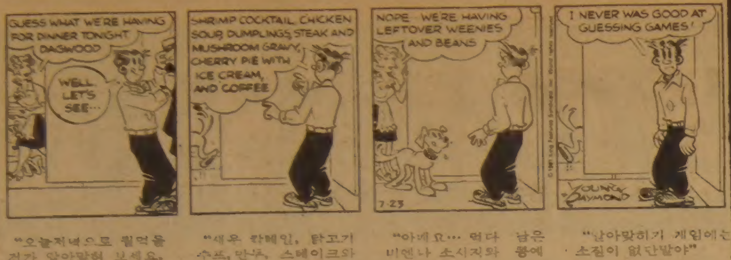
SUREKILLER
바퀴벌레, 개미, 벼룩, 좀벌레등 각종벌레.
Powder or Spray저렴한비용. 사용간편. 사전예방용. 100% 효과보장.
각 한국식품 판매처 또는 Ont. 전역 공급 Retail store경영하시는분 추문 배수.
☎ : 255-6849, 255-0713

운 전 교 습
STOP
423-3035
(오 행 근)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켓, 카트에 담아서 원하는대로 꾀염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각종 가죽옷 도산매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漫畫漫畫



"오늘저녁으로 뭘먹을건가 알아맞혀 보세요, 여보"

"새우 칵테일, 닭고기수프, 만두, 스테이크와 버섯그레이비, 아이스크림섞은 버찌파이 그리고 코피"

"아네요… 먹다 남은 비엔나 소시지와 콩예요"

"날아맞히기 게임에는 소질이 없단말야"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私企業지원·政府개입縮小"

韓·獨학술회의 分斷國경제정책討論

•北韓뉴스•

南韓서 金正日喜모 伏中 추위떤다妄發

한국海外旅行 개방 人身매매 擴大비난

祖國戰線결성 35周 對南공세 強化밝혀

女性 法曹人들 한자리에

80·81년 司法考試합격자 환영

◇선후배 여성법조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⑥로부터 李善姬·金英蘭·李玲愛·金德賢·趙培淑·李兌榮·康錫實·林淑景·黃德南씨。

延大生 셋拘束

校內서 油印物뿌려

海外여행자 防疫편의 위해

職員 외무부여권과에 派遣

삶의 궤적

〈題字·윤 치 영〉

윤치영

①

되돌아보며

이제 8旬의 언덕에서 걸어온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감개무량하다。榮辱이 엇갈린 한세기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나는 파란만장한 변천과 浮沈을 겪고 보아왔다。

開明의 기대와 國運이 흔들리는 불안을 함께한 韓末의 풍운기, 강토를 유린당한 日帝下, 그리고 해방과 分斷, 동족상잔, 정치의 격동을 겪어오다보니 어느덧 世紀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建國이후엔 정치일선에 참여를 하면서 때로는 날카로운비판, 때로는 관망을 해오기도 했지만 언제나 나의 주된 주장은「적극적삶」을 살자는 것이었다。역사의 진전을 외면하지 말고 눈앞의 小利를 떠나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소신이다。그것은 정치나 일상생활에서나 마찬가지다。

나는 지금도 정치인이란 것을 타고난사명으로 알고있다。지나온 일에 대해서나 인생행로에 대한 후회는 없다。

살아오면서 敵도 많았다。思想과 이해, 정치관이 맞부딪치면서 충돌도 하고 갈등을 빚은데서 나온 소산이다。하고싶은 말이나 뜻을 숨기지 못하는 직선적인 성격때문에 욕도 먹고 오해도 샀다。그런 사람들중엔 지금도 길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지않고 외면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그런사람들을 대할때면 정치인의 자세가 아쉬워진다。그들을 敵으로 생각할 마음은 추호도없다。

苦行의 시기에, 峻烈한 역사의 시련속에 다같이 조국을위해 일해보고자 했던「異質속의 同志」들이 아니었던가。

어찌보면 이나이에 이만큼 걸어온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부모, 가족, 이웃, 그리고 국가와 민족에 감사할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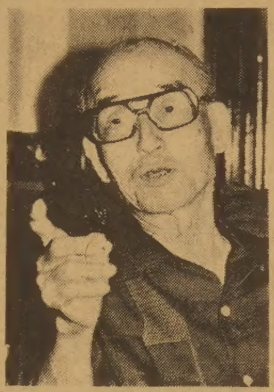
나는 주어진 사명을 필연의 숙명으로 알고 피하지않았다。

학창시절에 읽은 清末 北洋大臣 李鴻章의 글이 생각난다。아들에게 보낸 구구절절한 편지에서 그는『나라가 잘될때는 族閥들이 다해먹고 危難의 시기엔 나를 밀어 내세우니 나는 죽으란 말이냐。어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고 한탄했다。비록 분위기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글을 읽은뒤 나의감회는 컸다。나라와 역사가 지워준 짐을 숙명으로 알고 감수해야 된다는 것。

지나간 세월속에는 단절도 많았다。接合이 어려운 間隙도 많았다。앞날을 위해 그단절과 間隙을 극복하고 힘을뭉쳐 나아가자는 것이 내 소신중의 한 부분이었다。그 소신을 내나름의 정치철학을 통해 강조하다 보니 인간사이에 틈도 생기고 원치않는 적도 생겼음을 부인할수 없다。

榮辱엇갈린 한世紀…國運浮沈지켜

내 一生을 좌우해온 敬天·忠孝사상



◇8旬답지않게 요즘도 公私로 분주한 활동을 하고있는 東山 尹致暎씨。

流星의 賦

亡兆의 日月 ㉔

<13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張吉山

(1614)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74)

黃晳暎 作
崔 然 石 畵

모두들 외의 生

<155>

그림자놀이 ㊿

趙善作 作
禹慶熙 畵

고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Hwy 10 Burnhamthorpe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Yonge Bloor St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Bay Yonge King St

최대의 규모와 최신의 시설을 자랑하는

한발식품

항상 친절하게 맞아주는 한발식품을 찾아주세요. (미시사가)

★각종 신선한 농장식품 갖춤
★전자보온밥통 대매출세일

(B) 274-5401 (R) 625-1078

466 SOUTH SERVICE RD. MISSI. ONT.
(Cawthra Rd. 와 Hwy 10중간, QEW옆)

身元조회 5日로 短縮

海外여행시 83年부터 즉석電算처리

警官면접도 省略 陳述書 한面만 記載

해외여행자에대한 신원조회기간이 오는 8월1일부터 현행 7~15일에서 5일로 단축되며 83년부터는 전면전산화, 즉석 처리된다.

정부의 해외진출확대방침에 따라 신원조회간소화 방안을 검토중인 치안본부는 또 현재 양면으로 기재토록돼있는 신원진술서양식을 한면에만 기재하되 본인과 관련있는 것만 기재토록 대폭 간소화했다.

또 해외여행자에만 적용하던 재확인 제도를 국내취업자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해외여행때 신원조사를 한 사람이 5년이내에 국내취업등으로 신원조사가 필요할때에는 해외여행때 한 신원조사로 대신토록했다.

이에따라 8월부터의 신원조사는 현재 경찰서 파출소를거쳐 본인면접조사를하고 본적지 조회를 하던것을 모두 생략, 컴퓨터 조회와 기록대조로 전과자 출국정지자 탈세범 보사부이민금지자 등 신원특이자여부만 가려 특이사항이없으면 출국을 허가하기로했다. 기재양식도 종전에 처가의 부역여부등까지 기재토록 한것을 생년월일, 가족관계만을 기재토록했다.

83년까지의 전산화 계획은 모든형사사건에 계류중인 사람만 출국규제대상자로한정, 전산처리했다가 신원조사접수 즉시 컴퓨터에 넣어 이상이 나오지않으면 즉시회보, 접수와 동시에 처리한다는것이다.

해외여행자유화방침에 따라 치안본부에는 지난6월한달동안 모두 4만2천8백여 건이 접수, 하루1천4백80여건을 60여명이 처리하고있다.

國內취업자에 再確認制적용

東南亞 여행객 採便검사

保社部, 콜레라 傳染우려

보사부는 22일 콜레라환자가 상존하는 동남아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내국인에대해 귀국5일이내에 채변검사를 실시해 콜레라균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전국보건소및 검역소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또 관광호텔등 관광업소들이 동남아지역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관광객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파악, 이상이 있을때는 인근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즉각 신고토록해 줄것을 교통부에 협조요청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콜레라환자가 상존하는 동남아지역을 왕래하는 여행자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 콜레라의 국내전파가 걱정되고있기 때문이다.

蘇, 印尼蹴球 불참

【자카르타21日UPI=聯】 오는 8월13일부터 한국, 蘇聯, 泰國, 불가리아등 9개국이참가한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열릴 자카르타시 창설 기념축구대회에 蘇聯은 불참하기로 했다고 이번대회 조직위원회가 21일 밝혔다.

韓美安保 협의

丁議長, 오닐議長과 要談

【워싱턴=李成俊특파원】 丁來赫국회의장은 22일 상오9시30분(한국시간22일밤10시30분·이하 현지시간) 토머스·오닐 美下院의장과 만나 全斗煥대통령의 1·12및 6·5對北제의를 포함한 우리정부의 平和統一정책, 한반도안보문제 그리고 지난2월의 韓美정상회담을 계기로정상화된 양국간 유대관계를 의회차원에서 보다 심화, 발전시키기위한 방안등에 관해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丁의장과 오닐의장은 이날 요담에서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두나라의회 國防委員會간의 정례적인 상호방문및 교류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닐의장이 우리나라 국회의장과 정식회담을 가진것은 朴東宣사건이후 약6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丁의장은 이어 이날상하오에 걸쳐 美上下양원의 원내총무단및 外交委원장과 각각 자담회를 갖는다.

丁의장은 또 23일하오4시 조지·부시美副統領과 단독면담을 갖고 양국관계전반에관해 의견을 나눌예정이다.

日衆議院의원 5명 南총리禮訪 환담

南悳祐국무총리는 22일 상오 야마시다·간리(山本元利) 日本衆議院운영위원장등 의원일행5명의 예방을받고 환담했다.

야마시다위원장 일행은 이에앞서 蔡汶植국회부의장을 예방했다.

유니버시아드

남자배구 中共 꺾어야 決勝리그 進出

남자籠球팀 弱體 요르단 大破

【부쿠레슈티=楊森榮특파원】 제11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중인 한국 남자배구팀은 23일밤(한국시간) 中共과 예선B조 마지막경기를 벌인다. 한국은 中共과의 경기에서 이겨야 결승리그에 진출하게되며 패하면 9~15위전에 나가게 된다. 中共팀은 4개월전 홍콩에서 열렸던 월드컵예선때의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대표팀이 패했던 경험에 비추어 힘든 경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남자배구팀은 21일 대회3일째 약체 요르단과의 대전에서 제3세트를 퍼펙트로 장식하며 3세트를 통털어 4포인트만 허용하고 3-0으로 완승했다.

한국은 이날 5개종목경기에 출전했는데, 한국남자농구팀은 美國에 104-70으로 패해 8강권에서 밀려났다. 한국은 세네갈과의 경기를 남겨놓고 있으며 여기서 이기면 9-15위전에 나가게 된다.

이날 여자테니스의 金壽玉과 申順浩는 불가리아의 아타나소바와 英國의 주디스·엘스카인을 각각 2-0으로 완파, 2회전에 나갔으며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플라이급의 方大斗는 부전승으로 2회전에 진출했다. 육상1백m예선5조에서 張在根은 10초76으로 4위를 기록, 탈락했고 金福柱는 1천5백m예선에서 3분56초90으로 예선 7위를 기록, 탈락했다.

7개종목에 출전한 한국은 22일현재 농구가 이미 입상권에서 밀려났고 배구는 강호中共과의 경기에 운명을 걸고 있으며 육상과 펜싱은 초반탈락했다. 한국선수단은 테니스와 레슬링자유형경기에 상위입상의 기대를 걸고있다.

육상의 張在根과 金福柱는 모두 자기최고기록에 미달하는 성적을냈다. 張은 1백m에서 자기최고기록에 0.36초 뒤지는 10초76을, 金은 1천5백m에서 자기기록 52초30에 미달하는 56초90을 마크했다. 張在根은 준결승전에 오른 다른選手보다 기록이 좋았으나 강호가많은 5조에서 4위를하는 바람에 탈락했다.

◇제3일전적(21일)
◆남자배구 ▲예선B조
한국 3(15 15 15 / 0 2 2)0 요르단
(1승) (1패)
◆남자농구 ▲예선B조
미국 104(57 47 / 39 31)70 한국
(2승) (1승1패)
그리스 79-53 세네갈
(1승1패) (2패)
◆테니스 ▲여자단식 1회전
金壽玉 2(6 6 / 0 2)0 아타나소바(불가리아)
申順浩 2(6 6 / 1 4)0 엘스카인(영국)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플라이급
=方大斗 부전승
◆육상 ▲남자1백m 예선5조
①스탠리(미국) 10초29
④張在根 10초76

한국팀 決勝진출 존즈컵 男子농구

【타이페이=聯】 한국남자실업선발팀은 21일 中華체육관에서 벌어진 제5회 존즈컵 국제남자농구대회D조예선최종경기에서 홍콩을 95-53으로 대파, 2승1패로 自由中國靑팀(3승)과 함께 8강이 겨루는 결승리그에 올랐다. 그러나 한국은 1패의 부담을안고 결승리그에 오르게되어 상위입상은어렵다.

◇예선 최종일전적 ▲D조
한국 95(42 53 / 21 32)53 홍콩
(2승1패) (3패)

在學중인 外國人에 日, 國體참가 許容

【東京22日=聯】 日本체육협회는 이제까지 日本국적인에 한해 허용했던 日本국민체육대회 참가자격을 고교~대학에 다니는 외국인중 본인이 희망하면 참가를 인정키로 방침을 세움으로써 在日동포들의 日本國體 참가문호가 일부 열리게 됐다.

이같은 문호개방은 앞으로 日문부성과 최종협의를 거쳐 오는 10월13일부터 열리는 시가(滋賀)縣 國體부터 적용할 예정인데 이제까지 在日동포청소년들은 실력이 있으면서도 日本국적이 아니라는이유로 배척을당해왔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日本고교에 재학하는 사람에 한해 본인이 희망하면 日本국적이 아니더라도 참가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돼있어 日本人학교에 다니지않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수없다.

문부성조사에 의하면 日本 國體운동부의 훈련을 쌓고있는 在日한국인은 약3천명에 달하며 이중 縣대표로 참가할수있는 실력보유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美洲卓球여행 ⑦

—全美오픈大會의 意味

選手가 審判구하느라 헤매야하고

採點表만 가져가면 1弗씩수고료

桂炳興코치는 收入올려 間食費로 보태기도

개인전 진행은 더욱 가관이었다. 선수들중 더러는 제짝을 찾아 경기장을 헤매고 더러는 심판을구하느라 몸살을 짓고있었다.

대회본부는 누구든 심판을 본후 채점표를 가져온 사람에게는 수고료로 1달러씩을 지급했다. 우리선수들의 채점표를걷어간 桂炳興코치는 적지않은 수입을 올려 선수단 간식비에 보탰다.

한국-中共의 남자준결승전은 경기장이 숙연해질 만큼 긴장된분위기속에 벌어졌다. 1차단식에서 金浣은 제2세트 한때 10-10까지 선전했으나 왼손세이크형인 蔡振華의 날카로운 서브와 파워·드라이브에 밀려 2-0으로 완패했다. 金琦澤도 謝賽克의 놀라운 스피드와 롱·드라이브에 밀려 2-0으로 졌다. 金浣과 劉時興이 이어 2-0으로 졌다.

東亞建設여자팀도 단체 준결승서 美國을 3-0으로 제치고 결승에 올랐으나 中共에는 3-1로 졌다. 中共의 연전연승으로 대회장은 中共탁구에대한 찬사가 자자했다. 22일 폐막

[illegible]

위험…名物 昌善大橋

閑麗水道 床板비틀리고 橋脚침식

【晋州=聯】 국내유일의 閑麗水道의 명물인 昌善大橋가 개통1년만에 상판(床板)이 비틀어지고 교각밑부분이 해수에 패어 다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2일 경남 南海郡에 따르면 지난해 6월 8억6천3백만원을 들여 완공한 이 昌善大橋는 길이 440m, 폭 8.5m로 [illegible]

美人競艶 人種차별

亞阿대표 美國비난

【필라델피아UPI=聯】 금년도 미스유니버스선발대회의 일부참가자들은 대회주최측 관계자들이 흑인과 아시아출신 미녀들에 차별대우를했다」고 주장했다. [illegible]

西獨서 한국作品展

韓獨미술가協, 9월19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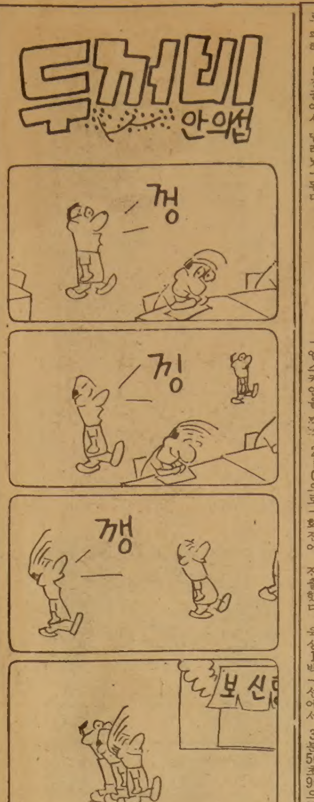
韓獨미술가협회는 韓獨양국간의 작품발표전의 일환으로 제1회 한국회원작품발표전을 오는 9월19일부터 10월11일까지 서독 본市의 되니히미술관에서 갖는다.

한국작가들의 독일에서의 본격적인 작품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인데 참가작가는 서양화부문에서 19명, 동양화12명, 판화4명, 조각7명 등 모두39명에 91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韓獨미술가협회는 내년에는 독일의 작가들을 한국에 초청, 정기적으로 교류전을 갖기로했는데 이번 독일전시회에는 10명의 우리나라작가가 오프닝에 참가할 예정이다.

제1회한국회원전의 참가작가는 다음과같다.

◇동양화=金基昶 金元世 [illegible]
◇서양화=金亨球 [illegible]
◇조각=[illegible]
◇판화=金丘林 白金男 宋[illegible]



유일한 한국인
강찬영변호사
534-1129
534-1120

第12期 名人戰 挑戰5番棋

第3局 第7譜 101~120 (각5시간)

白(挑戰者) 徐奉洙〈1勝1敗〉
黑(名人) 曺薰鉉〈1勝1敗〉

中央白家 어하가 승부

전보에서 黑이중앙에 1로 뛰어든 자도전자는 한숨을 돌이쉬었다. 좀체 감정을 나타내지않는 대신, 일이 여의치 않을때는 으레 이렇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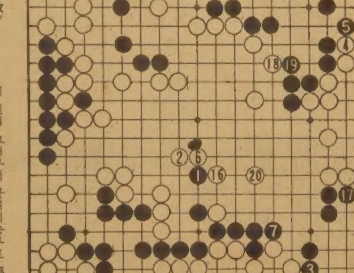
그럴 노릇이다. 여태까지 열심히 경영해온 중앙의 대세력이 어이없이 깨지고 얻은것이란 고작 하변黑집을 유린한 소득뿐이다.

3분을 고심하다가 하는수없이 白2로 막았지만 이것은 누구가 봐도 뒤처럼 「소잃고 외양간고치기」다. 黑은 더이상 白6자리에 밀지않고 3쪽을 가일수하여 우세를 과시한다. 이정도로 충분히 이길수있다고 확신한것이다.

도전자는 그러나 白6에막고서 최후의 희망을 걸어본다. 설령 黑에게 7과 같은 두터운 수를 허락하더라도 상변 白8의 비마로 삭감하고 白16에 젖혀 그때부터 끝내기승부로 黑을 추적해보자는 계산이다.

그런데 觀戰子는 여기서 나름대로 기대가 어긋났다. 이왕이면 내친걸음에 우하귀쪽도 상변파갈이 白「가」로 달려 선수끝내기를 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白16으로 그것을 보류한 까닭은 알수없지만 이순간 黑이 재빨리 17로막고보니 白은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고할밖에 없다.

하기야 이런 것은 계산상의 미묘한 일이라서 보는이가 속단키어려우나 黑이 17을두고서 계가를 확인한데 대해서 白은 20으로 적세삭감을겸하여 白家를 확대하면 승부가될 것으로 계산한것이 사실인듯. 다만黑이 모두 확정된집인데 반하여 중앙白은 아직도 삭감당할 여지가 있는점이 문제다. 결론적으로 중앙白집이 어떻게 줄느냐가 승부의 관건인 것이다. 【一凡】



◇로저스 全英골프 優勝 권위있는 제110회 全英오픈골프대회서 우승을 차지한 빌·로저스(미국)가 우승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있다. 로저스는 4언더파 276타로 우승, 5만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AP〉

코마네치 健在 金메달

U大會 體操개인전서 妙技

蘇聯코치는 判定에 不滿터뜨려

【부쿠레슈티=楊森榮특파원】 세계체조계의 요정 나디아·코마네치(사진)가 21일 열린 81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 체조 여자개인전에서 39.40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한데이어 단체전에서도 루마니아가 1백18점으로 蘇聯(1백16점)을 제치고 우승하는데 수훈을 세웠다.

코마네치는 올림픽때와 마찬가지로 [illegible] 2위에 머문 蘇聯팀코치 블라디미르·코크사가 「루마니아에서는 정당한 경기를 기대할수없다」며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76년 13세의 어린나이로 몬트리올올림픽의 여자체조를 휩쓸어 전세계를 놀라게했던 코마네치는 이날 경기중 시종 열광적인 루마니아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으나 평균대와 마루운동서 각각 만점을 얻고 우승을 차지해 건재를 과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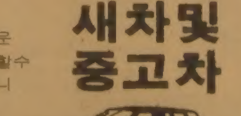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해 보스크바 [illegible]

NORTH YORK CHEVROLET OLDSMOBILE GM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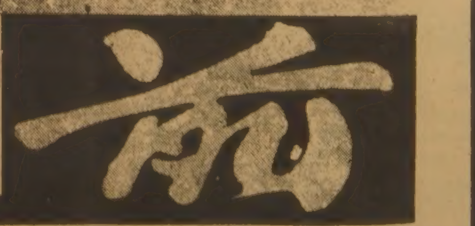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광고를하시기



경기가 침체할수록 광고는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고비용은 절대 줄여야 합니다. 때문에 어떠한 광고 매체를 언제선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한국일보 광고부제공
광고문의 : 533-2361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전 북미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GM의 신형모델 J2000가 에디슨에 나와 있읍니다. 각종외국 수입품보다 Engineering Technology, Gas Mileage에서 월등하며 GM역사상 가장 센세이숀널 J2000를 시운전 해보시고 북미의 이 새로운 Feeling을 체험해 보세요.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